

충남대-국립한밭대,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선정

‘국립대학-출연연 융합 통한 초격차 연구와 지역성장 이끄는 글로벌대학: 과학수도 재창조’ 비전 제시

충남대학교와 국립한밭대학교가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됐다. <관련기사 13면>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가 4월 16일,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을 선정, 발표한 가운데 통합기반 혁신으로 응모한 충남대와 국립한밭대가 선정됐다.

글로벌대학위원회에 제출한 혁신기획서에 따르면 충남대와 국립한밭대가 글로벌대학 추진하는 글로벌대학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CHANGE (Chungnam-Hanbat Activate iNnovation & Global Education)’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원, 지자체 및 지역 혁신 주체와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을 통해 초격차 연구와 지역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글로벌 대학이 되어, 과학수도 재창조와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변화(Change)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는 것이 혁신 비전의 목표다.

충남대와 국립한밭대는 선도모델로 독일 전역에 76개의 연구소와 3만여명의 직원이 연간 30억 유로의 예산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유럽 최대의 응용과학연구소인 ‘프라운호프’형 응용융합연구원을 벤치마크했다. 대학과 정출연이 공동으로 프라운호프형 응용융합연구원을 설립해 대학 연구자, 정출연 연구자, 후속세대 연구 인력 등 지자체의 혁신 연구 역량이 대학 캠퍼스에 입지한 공동 연구 플랫폼과 공동 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육과 연구 역량을 극대화해 노벨상급 석학 원장 초빙, QS 100위권 학분분야 10개 육성, 응용 연구원 J.A(Joint Appointed) 교원 및 연구원 1,000명 등 전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학석박 연계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격차 R&D 연구를 선도할 특성화 분야로 대전시 4대 미래 전략 산업인 ABCD(Aerospace 우주항공, Biohealth 바이오헬스, Chip 반도체, Defense 국방) 분야와 연계해 ‘의약바이오’와 ‘국방융합’ 분야 중심으로 첨단 기술 발굴부터

맞춤형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 거버넌스 구축에 나서, 대학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넘어 Action Tank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한밭대와 충남대는 경협중심 융합교육 실현을 위해 올린공과대학을 벤치마크해, ‘Charge 융합대학’을 중심으로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구조를 혁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한밭대는 지난 2월 올린공과대학과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린공과대의 교육모형을 아시아지역에 확산하는 허브대학으로의 기능을 마련했다.

1학년은 문해력과 기초과학역량 강화, 2-3학년은 심화·융합·자기설계·산학연계·기업수요·전공 등 전공의 다양성을 높이고, 4학년은 인턴·집중·연구학기제, 마이크로디그리, 모듈전공 등 자기선택성을 높이며 대학원 과정까지 연계하는 등 학과와 단과대학의 경계를 뛰어넘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융합기반의 수요자 중심 브릿지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학교 최초로 국내-해외 글로벌 오픈캠퍼스 구축을 통해 국내 대학의 글로벌 수출과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글로벌 오픈캠퍼스’는 충남대가 제시한 국립대학의 해외 수출 선도모델로, 해외 우수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공동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과 연구협력, 대학 간 학생 상호 교류 등 국내 대학의 글로벌 진출과 연구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연구 중심 국립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베트남 하노이과학기술대학, 베트남국립 농업대학, 모나시대학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 인도네시아 IPB대학 등과 글로벌 오픈캠퍼스 구축을 위한 MOA를 체결하는 등 해외에 현지 글로벌센터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립한밭대 또한 베트남경제대학교와

MOA를 체결했으며, 체코 등 동유럽 대학을 포함하여, 베트남 교육부, 노동부와 협력하여 해외우수 연구인력 유치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 간 통합 혁신을 선택한 충남대와 국립한밭대는 지난 1월, ‘충남대학교-국립한밭대학교 글로벌대학30 사업 및 대학 간 통합 추진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글로벌대학 사업과 통합 추진 과정에서 양 대학이 상호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글로벌대학 사업을 위해 직접 투자 2,000억원, 간접 투자 6,400억원 등 총 8,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한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을 뿐 아니라, 2024년 글로벌대학 사업의 혁신기획서 작성을 위해 지난 2월, 대전시에 소개하고 있는 지·산·학·연 28개 관련 기관이 대전시와 대전 소재 혁신기관의 과학기술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지·산·학·연 혁신주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2024년 글로벌대학에 예비지정됨에 따라 본지정 평가를 위해 충남대와 국립한밭대, 대전시는 공동으로 구체적인 본지정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6월 말까지 실행계획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교육부 등은 본지정 실행계획서를 평가해 7월 본지정 발표, 8월 본지정 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충남대 김정겸 총장은 “충남대, 국립한밭대 양 대학 구성원은 물론 대전시와 지역혁신기관, 지역민들의 성원 덕분에 글로벌대학 예비지정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대학 구성원과 세심히 논의하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충남대, 국립한밭대, 대전시가 함께 드시 글로벌대학 본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한밭대 오용준 총장은 “국립한밭대와 충남대가 혁신기획서에 담은 내용들을 토대로 남은 기간 동안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더욱 세밀히 마련하여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고 대한민국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대학 본지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김성구 대전투데이 사장,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만나 환담 나누기
김성구<왼쪽> 대전투데이 사장은 16일 오전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박청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동구의 구성 방향은 ‘교육’과 ‘미래’다. ▲배움으로 성장하고 희망을 꿈꾸는 교육도시 조성 ▲동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한 품격있는 문화예술 도시 도약 ▲대전 미래 100년을 위한 원도심 혁신 추진 ▲더욱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누구나 안전한 도시 조성 등이 목표”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산시 대산읍 안산공원조성사업 농락 행위 즉각 중단 촉구

2017년 성일중 국회의원·서산시·서산시의회·대산공단 입주기업 MOU 무색

대산공단 입주기업들이 대산읍 민들의 숙원 사업인 대산안산공원 조성사업을 약속하고도 수년째 지치지 않아 읍민들이 농락당하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산업발전의 중심 대산의 새로운 빛이 되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안산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대산읍민들에게 약속이 장미빛 고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HD오일뱅크, 한화토탈 에너지, 롯데케미칼, 엘지화학 등 대산

4사 기업들이 지역민을 위한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안산공원 조성사업을 약속하고도 수년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7년 12월 27일 성일중 국회의원, 이완섭 서산시장, 우종재 서산시의회의장, HD현대오일뱅크 강달호 이사, 한화토탈 이은 이사, 롯데케미칼 김용호 이사, 엘지화학 김동은 이사 등이 지역발전 상생 협력 MOU 체결에 서명했다.

대산4사의 임원들이 대표이사를 대리해 지역 발전 상생 협력 MOU에 서명한 것은 지역 환경개

키즈카페, 독서실, 동아리실, 노인 대학, 수영장, 여가공간과 휴식 공간에는 잔디마당, 기적뿔밭, 파크골프장, 순환산책로, 전망휴게쉼터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2020년 협약서 제2조에는 대산읍 안산공원에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에 427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기로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합의 이후 생담금을 놓고 수년 동안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물가 상승률에 의해 사업비가 약 2배의 가까운 742억원 이상 투입돼야 사업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산읍민들은 4사들이 분담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에 지역과 상생하겠다고 약속만 했지 사실상 상생을 외치는 구호가 헛

구호라며 분노를 토로하고 있다.

대산발전협의의 관제지는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안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묻는 최종서류를 4사에 보내기로 했다. 그러면서 최종 서류를 받고도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전 읍민들이 집회를 갖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읍민들 다수는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분담금은 입주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분담금을 놓고 더 이상 읍민을 우롱하지 말라는 여론이 높다.

시민들은 대산읍민의 숙원사업인 안산공원 조성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산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묻고 있는 가운데 대산공단 입주기업들이 어떠한 대답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산=김정환기자

2024 BERRY BERRY

빙빙데이

2024.04.27(토) - 04.28(일) | 참여 제과업소

총 예산: 57,800,000원
시비: 50,000,000원(86.5%) / 자부담: 7,800,000원(13.5%)

주최·주관 (사)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총선후 첫 사과

“대통령인 저부터 국민 뜻 잘 받들지 못해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이 참패한 총선과 관련,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총선이 끝난 지 엿새만인 이날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를 결과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쇠

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두고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로 국정 운영이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식이) 때

를 맞으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반성한다면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 비유해 말하기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자성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 국정을 돌아보며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고 자성했다.

이정복기자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출범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는 16일)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출범’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8호, 통권 제80호)를 발간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불균형이 장기화되고 미·중 간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2022년 8월, 「반도체 과학

NSTC는 미국 반도체 기금(CHIPS for America Fund) 중에서도 50억 달러(약 6조6천6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민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 국립연구소, 산업체, 공급업체, 교육기관, 기업가, 노동계, 투자자 등이 플랫폼을 통해 반도체 제조 활성화와 첨단 시제품화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인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에서의 초격차 실현을 위해 한국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의 설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 NSTC 출범 사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입안과 입법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김성구기자

충남도의회, 지역 응급의료 지원체계 개선한다

김선태 의원 대표 발의 ‘응급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는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응급환자가 이송 지연을 겪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의 의무화하고, 지원단의 업무에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을 신설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23년 기준 충남지역의 2차 재이송은 23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에 따라 응급의료 체계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응급의료지원단 설치를 의무화하여 응급의료 현황 분석,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등 관련 업무의 체계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신설하여 심정지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조례안 시행을 통해 충남도의 응급의료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정환기자

대전 동구의회, 오는 24일

제278회 임시회 개최

대전 동구의회(의장 박영순)는 16일 운영위원회 및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일반안건 처리와 함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과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박영순 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회기중에는 관내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정 운영의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모든 의원들께서는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78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24일 제1차 본회의 ▲25일-26일 현장방문 ▲29일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5월 2일 제2차 본회의(구정질문) ▲3일 제3차 본회의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회의 영상은 동구의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김정환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 안전한 사회 건설은 우리시대 과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논평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은 우리시대 과제”라고 논평을 내렸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그날을 우리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안전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동이 초

래한 인재였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다짐은 시간이 흘러도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순간도 ‘안전한 사회’를 향한 약속을 포기한 적이 없다. 하지만 아쉽게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안전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동이 초

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사회적 재난과 참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끝으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진정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라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정복기자

세종시, 해외유학생 2명 선발 글로벌 인재로 키운다

15일 장학증서 전달... 해외유학비 최대 2년간 1억 원 지원



세종시와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김기훈 씨와 신주민 씨 등 2명을 올해 해외유학생으로 선발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지원한다.

시와 진흥원은 15일 시청 세종실에서 해외유학생과 학부모, 소속대학교 부총장도 참석한 ‘2024년 세종시 해외유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외유학생은 지역의 우수 인

재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자 해외유학을 지원하는 제도로, 해외 학교 입학허가 취득 시 1인당 1년 최대 5,000만 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대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도, 학업성적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한 지역 청년 가운데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등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2명이 선정됐다.

세종=김태선기자

최종 선발된 학생은 관내 고려대를 졸업한 김기훈 학생과 홍익대를 졸업한 신주민 학생으로, 올해와 내년 미국으로 건너가 각각 스포츠경영 및 융합공학 분야 석사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김기훈 학생은 “유학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세종시 장학금으로 선발되어 기쁘다. 스포츠 경영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주민 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큰 기회가 주어져서 실감이 나질 않는다. 꼭 좋은 결과로 내년에 유학을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기회를 준 세종시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시와 진흥원은 매년 우수 지역인재를 선발해 지역의 기부금을 활용, 이들의 해외 유학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정환기자

충남도의회 홍보대사 박진균



화가 수목화 작품 의회 기증

충남도의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인주(仁州) 박진균 화백이 도민의 안녕과 도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수목화 미술작품을 의회에 기증했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조길연 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미술작품 기증식을 열고 실악산 대청봉과 마등령 사이에 솟아 있는 ‘공룡능선’을 그린 수목화(415cm×140cm) 1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미술품은 하늘에 포근히 감싸여 아름답고 웅장하게 우뚝 솟은 범봉과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울산바위, 운해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화선지에 수묵화로 담아낸 작품이다. 박 화백은 “변화된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본연의 모습으로 불변의 진리를 보여주는 신선한 감동을 그리고자 했다”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조길연 의장은 “박진균 화백의 작품이 도민께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귀한 작품을 기증해 주신 박 화백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교육발전 통한 지역산업과 인재육성 위한 정책대안 모색

대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 2024년도 첫 간담회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중구1, 국민의힘)이 회장을 맡은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가 1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회는 대전시의 지역인재육성 방안에 대해 입법·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2023년도 3월부터 가동되어 올해로 2년차를 맞고 있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정

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공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다.

16일 첫 모임은 ‘2023년도 연구회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도 연구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에는 교육발전특구가 지역의 발전전략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과 인재육성’,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취업 및 기업유치’ 등의 주제와 관련된 현안별, 정책별 논의와 함께 전문가 초청 특강, 간담회, 현장조사, 연구용역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금산군의회, 제316회 임시회...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변경안 2건 등 심의·의결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운)가 제316회 임시회를 맞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총 41개소 사업장을 방문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0개 읍·면 및 5부서의 21개소 사업장을, 경제산업위원회는 6부서 및 1직속기관의 20개소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현장점검 시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군정질문·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기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기수 의원(천안경북)이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개최한 이번 임시회는 7일간(4월 16일~4월 22일) 조례안 7건(의원발의의 조례안 3건 포함), 동의안 2건, 변경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제 구축)과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인삼야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금산=이정복기자



“감격 · 환희의 순간, 대덕의 가치를 두 배로”

2024 대덕물빛축제 개막행사 ·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성료... 13~14일 양일 28만여 명 관람객 동원 ‘쾌거’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종규)의 지난 13~14일 양일간 대청공원에서 펼쳐진 ‘2024 대덕물빛축제 개막행사’와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에 28만여 명이 축제를 다녀가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덕구에 따르면 2024 대덕물빛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은 벨로망스, 루시, 소란, 풀킴 등 실력과 가수들의 화려한 공연과 대청공원의 자연을 배경으로 소풍 같은 힐링 축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 줬다.

특히 이번 뮤직페스티벌은 국내 최고 수준의 라인업(line-up)으로 행사 이전부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행사 전날부터 행사장을 찾는 음악 팬들로 인해 뜨거운 열기와 함성이 대청호를 가득 채웠다.

또한, 다양한 체험 부스와 대덕구 이현동 여수바위 고래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이야기책 기획전시, 핑크 고래 모래놀이터, 어린이 체험 레일이 있는 키즈존,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피크닉존 등을 별도로 운영해 행사장을 찾는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와 낭만 가득한 축제로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이다.

특히 환상적인 연출로 펼쳐진 600대의 드론쇼와 화려한 불꽃쇼 개막 퍼포먼스를 통해 감격과 환희로 대덕구의 밤을 수놓는 등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구는 뮤직페스티벌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전년 대비 셔틀버스 운행 및 주차 가능 면수 증대, 임시화장실 추가 설치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했으며, 안전관리 인력 보강, 열 감지 영상 분석 드론을 활용한 행사장 밀집도 파악 등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

또한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인한 관람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원한 급수차 운영 및 식수 공급, 그리고 공원 내 바닥 분수 운영으로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장을 제공했다.

최종규 대덕구청장은 “천혜의 자연경관이 펼쳐진 대청호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기는 대덕물빛축제는 차별화된 고래 테마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달성한 우리 대덕구의 대표축제”라며 “특히,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은 중부권 최대의 음악축제로 더욱 위상을 높였고, 개막퍼포먼스의 화려한 연출은 모든 관람객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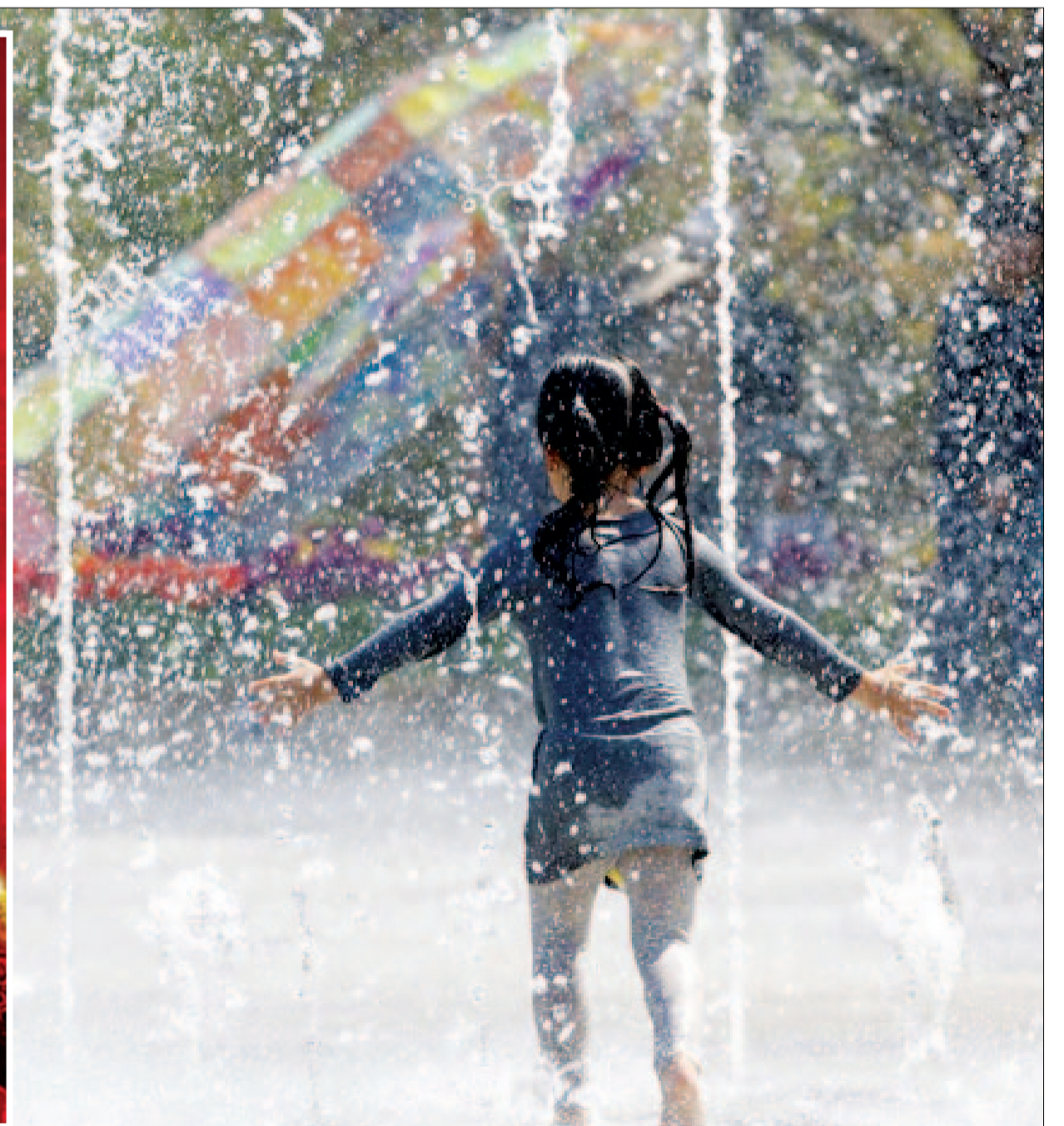
이어 그는 “대덕물빛축제는 도심형 소비축제와는 달리 문화 대덕, 관광 대덕의 목표달성을 위한 관광형 문화축제로 더욱 발돋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덕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구청장은 “올해도 대덕구를 찾아주시는 방문객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며 “내달 6일까지 진행되는 대덕물빛축제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대덕물빛축제는 지난 3월 29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고래를 주제로 한 루미페스타(luminarie festa, 야간 경관 조명)를 대청공원 일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내달 5월 6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39일간의 축제 기간 중 3분의 1이 경과한 시점에서 관람객 40만여 명이 방문해 역대 최대의 성과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태선 기자



● 동 정 ●

수출상담회



김대흠 충남도지사= 17일 오전 9시 40분 스피러스리움에서 열리는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에 참석.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17일 오전 9시 30분 충남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행사



최재구 예산군수= 17일 오전 11시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추진상황 보고회



이용록 홍성군수= 17일 오후 4시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2025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참석.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개최 읍면동장 회의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봄꽃이 개화하는 4월을 맞아 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읍면동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민호 시장과 24개 읍면동장, 관계 부서장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연계한 읍면동 100대 마을정원 조성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읍면동 100대 마을정원 조성은 박람회 주제인 '정원 속의 도시, 미래의 수도'에 맞춰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테마와 자연이 숨 쉬는 정원마을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읍면동에는 3~5곳씩 총 100개의 마을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마을계획사업,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마을정원사업이 진행된다.

각 읍면동은 지난해부터 정원 기반시설을 조성 중으로, 올해부터 한 국수목원장관리원 협조에 권역별 컨설팅을 하고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정원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예산군 고덕면 사리-사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완료

예산군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통행이 불편했던 고덕면 사리-사리간 농어촌 도로(고덕205호) 확포장 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총 1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며 농어촌 도로 길이 670m, 폭 5m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차량 교통 및 보행자 안전 등 문제를 해소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고덕면 사리 마을 주민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통행이 불편하던 도로가 교행이 가능해져 준 공 후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예산=박재화 기자

'부남호 역간척' 국가 사업으로 띄운다

충남도,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국가 사업화' 정부 수용



충남도가 펼쳐온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사업이 마침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된다.

민선8기 협천충남의 국가 사업화 요청을 수용하며, 정부가 연안 담수호 조사와 함께 우선 추진 사업 대상 선정에 나선다.

이에 따라 도는 부남호 등에 대한 국가 사업 대상 반영을 위해 대응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16일 도에 따르면,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은 간척 등 개발로 막힌 물길과 갯길을 다시 연결해 수질과 갯벌, 기수역 등을 되살리고,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부남호의 경우 △수질 악화 및 악취 발생 △우기 시 담수호 방류로 인한 천수만 오염 및 어장 피해 발생 등에 따라 도가 생태 복원 대상으로 선정, 사업 추진을 위해 공

을 들이고 있다.

부남호 생태 복원 계획은 △방조제 구조 변경 △해수 유통구 확장 및 통선문 설치 △오염 퇴적토 준설 △생태하천 조성 △해양신도 시 육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1단계 투입 사업비는 1134억 원이다.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국가 사업화는 민선8기 들어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

도는 지난 2022년 김태흠 지사 불길과 갯길을 다시 연결해 수질과 갯벌, 기수역 등을 되살리고,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부남호의 경우 △수질 악화 및 악취 발생 △우기 시 담수호 방류로 인한 천수만 오염 및 어장 피해 발생 등에 따라 도가 생태 복원 대상으로 선정, 사업 추진을 위해 공

을 들이고 있다.

예산군,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정부예산 확보 간담회

총선 이후 5일만 개최 '발빠른 대응' 나서다



예산군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승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및 도·군의회를 초청해 내년 정부 예산 확보방안 및 현안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최재구 군수, 강승규 국회의원 당선인, 이상우 군의장, 방한일·주진하 충남도의원, 군의원 및 관계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점확보 사업 102건, 국도비 2069억원(총사업비 3300억원)에 대한 정책 논의

로 정부예산에 5억 원이 반영되게 됐다.국비 포함에 따라 해수부는 조만간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타당성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고, 도는 이에 발맞춰 대응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대응 연구용역은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한 우선 추진 대상 선정 시 부남호를 먼저 반영시키고, 신규 사업 대상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충남연구원이 실시한다. 또 △국가 타당성 조사용역과 대응 △도내 사업 후보지 분류 및 타당성 분석 자료 검토 △생태 복원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 △체계적·종합적 기수역복원형 갯벌 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 등도 연구용역 배경 및 목적이다.

공간적 범위는 서산시, 태안군 일원 부남호를 포함한 충남 서해안 연안·하구 등으로 잡았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는 △기수역 복원형 갯벌 복원 대상지 선정 기반 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국내의 유형·규모별 갯벌 복원 사례를 찾는다.

이어 복원 가능 대상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복원 사업 대상지별 최적 기수역복원형 갯벌 복원 방안과 계획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 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해 경제성·정책성·지역 균형발전 등 항목별 효과 분석 방안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경제성 분석과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한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그 동안 국가 사업화를 누차 추진해

가 이뤄졌다.

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2024년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 공모 사업 △스포츠 벤처센터 조성사업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사업 △천연물소재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예당지수지 친환경 호수 조성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혁신센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장 조성사업 등을 설명했으며,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 정책 반영 및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강승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예산군의 정책 및 국비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업 및 제안

이 정부 부처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구 군수는 "앞서 논의된 현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위해 군 공직자들과 국회, 군의회가 같이 힘차게 달리는 만큼 예산군의 앞날이 새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매년 국회의원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군정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공감·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에도 총선 이후 5일 만에 당선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을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예산=박재화 기자

세종충남대병원, 신규 의료진 7명 영입해 진료역량 강화

소아청소년과·신생아중환자·이비인후과·외과·산부인과 총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권계철)은 지역 필수의료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의료진 7명을 영입해 진료를 시작했다고 4월 16일(화) 밝혔다.

이번에 새로 영입된 7명의 전문의는 윤영미 교수, 유하니 교수, 김지원 교수(이상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김지원 교수, 한승철 교수(이상 이비인후과), 고명현 교수(외과), 현석환 전임의(산부인과) 등이

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소아청소년 인구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종시 특성을 감안해 신생아와 소아응급중환자, 신생아중환자를 전담할 의료진을 강화했다.



함께 따라 앞으로는 필수의료 붕괴 위기 대응 및 지역 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필수·공공의료 지원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권계철 원장은 "실력 있는 의료진 영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보

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진료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수술, 외래, 입원 등 정상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 김태선 기자

최재구 군수, 예산축협 최첨단 가축전자경매시장 방문

축산농가 애로사항 청취

최재구 예산군수는 16일 예산 수덕사IC 인근 오기면 국사봉로 44에 위치한 예산축협 가축 전자 경매 시장을 방문해 송아지 경매 진행 상황 및 축산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최재구 군수는 축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축시장을 운영하는 축협 관계자와 경매에 참석한 축산 농가 80여 명을 격려했다.

이날 경매 출장 두수는 한우 송아지 257두(암송아지 55, 수송아지 202두)이며, 이는 신앙면 낙문리에 위치한 기존 송아지 경매 시장보다 30~40두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 11일 첫 개장한 가축전자경매시장의 거래 두수는 송아지 500두, 큰 암소(번식우, 비육우) 100두 등 월평균 총 600두 수준으로 전망되며, 기존 송아지 경매시장보다 총 7000여두의 경매 건수 증가로 총 거래액은 272억으로 예상되고 이는 축산 농가의 소득 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최첨단 예산축협 가축전자경매시장은 큰소 1회, 송아지 2회로 월 평균 2~3회에 걸쳐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될 예정이다.

예산=박재화 기자

"지역 명소 찾아가 함께 걸으며 건강생활 실천해요"

자율적 걷기 동아리 선착순 모집

세종시보건소

세종시보건소(소장 강민구)가 시민의 비만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자율적 걷기 동아리'를 운영한다.

동아리는 17일부터 20팀을 선착순 모집하며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까지 팀을 구성한 후 신청하면 된다.

동아리 활동은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4주간으로, 올해 신규 신청자가 우선 배정되고 이미 결성된 동아리도 참여할 수 있다. 동아리 운영은 주 1회 이상 동아리원 전체가 함께 모여 세종시 명소를 찾아가 걷고 인증사진과 활동일지를 동아리 대표자가 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4주차 별로 ▲이동다리 걷기 ▲충양공원 장남뜰광장, 도담동 해뜨락 광장 등지에서 세종 글자와 농성이 찾아 걷기 ▲중앙공원, 호수공원, 조천연꽃공원 등 세종시 관내 공원 걷기 ▲전월산, 비하산, 오봉산 등 세

종시 관내 산 걷기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아리원 전체가 4주간 14만보 이상(하루 8,000보 제한) 걸음 수를 달성해야 하며 동아리원 전원 걸음 수 달성 및 주 1회 사진 인증을 모두 완료하면 동아리 대표자에게 여민전 5만 원이 지급된다.

단, 인증사진 합성 저발시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동아리 대표자가 네이버 폼(<https://naver.me/kxb71Az1>)이나 정보무기(QR코드)를 활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동아리명, 인원수, 동아리원 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하고 인증에 필요한 동아리 이름의 경우 활동 도중 변경이 불가하다.

동아리 신청 후에는 동아리원 전체가 동아리 활동 시작 전까지 반드시 '워크온' 앱 내 걷기 동아리 커뮤니티에 가입해야 한다. 김태선 기자

홍성군 고품질 쌀 생산 위한 종자소독 현장 기술지원 강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쌀 소독 증대를 위해 철저한 병해충 소독 현장 기술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정부의 주요 보급종 품종이 미소독에서 소독종자로 변경됨에 따라 농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종자소독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비 보급종은 농약 오남용 예방 차원에서 2021년부터 미소독 상태로 공급되었으나, 지난해 잦은 강우로 활력이 저하되면서 올해는 카디리병 등 병원균 확산을 막기 위해 삼광, 친들, 참드림 등 주요 품종에 한해 전량 소독된 종자가 공급되고 있다.

종자소독은 카디리병, 이삭누룩병, 선충 등 다양한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어 쌀 품질과 수량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병에 걸린 모종을 이앙할 경

우 분담후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종 전 철저한 소독 작업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종자소독 방법은 60℃ 온탕소독과 전용 약제를 활용한 약제소독 등이 있다. 미소독 종자의 경우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면 카디리병 방제율을 90% 이상 높일 수 있다.

반면 이미 소독된 보급종은 별도의 온탕소독과 전용 약제 사용을 생략할 수 있으나, 병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지소독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카디리병 발병 우려 시에는 미소독 종자 수준으로 소독해야 한다.

이승복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한 해 농사의 절반은 종자소독과 육묘관리에 달려있다"라며 "철저한 종자소독으로 병해충을 사전에 차단하고, 모판 관리 단계에서부터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기술센터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선 기자

우리/동네

천안시, 전기이륜차 40대 구매보조금 지원

6월 28일까지 접수... 차량·차종별 보조금 상이

천안시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상반기에 전기이륜차 40대 보급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보조금은 1대당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270만 원

이다.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지원 가능 차량 및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x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소상공인·농업인이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20%를, 배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

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국비 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6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사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공고알림/공지사항 또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전기이륜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친환경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통정

참여자문화체험



정도희 천안시의회의장은 17일 오전 10시 천안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문화체험 참석.

천안어린이꿈누리터, 5월 4~6일 어린이날 행사 개최

4~6일 어린이날 행사 개최

천안어린이꿈누리터(관장 조혜순)는 어린이날을 맞아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어린이날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꿈누리터는 4일 천안시청 봉사실에서 가족뮤지컬 '코드네임X'를 2회(회차당 70명) 운영한다. 코드네임X는 11살 평범한 소년 '강파랑'을 중심으로 액션은 물론 웃음과 반전, 감동까지 담아낸 가족뮤지컬이다.

어린이날에는 아동 낙서 틈새전시(사전공모), 파우치·어린이증 만들기, 쿼드로잉 캐리커처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5일과 6일 이블른 홀놀이터에서는 블랙라이트 낙서체험, 손발척척 그림자놀이 등이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천안시민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홀놀이터 무료입장 티켓은 4월 17일, '코드네임X' 공연은 4월 20일부터 천안어린이꿈누리터 누리집을 통해 예약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41-522-7199)로 문의하면 된다.

조혜순 관장은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천안어린이꿈누리터를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어린이날 행사의 주제가 낙서인 만큼 어린이들의 반짝이는 상상력과 순수한 시각으로 맑게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찾아가는 보훈마당' 운영

천안시청소년재단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이 국가보훈부 2024 보훈테마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보훈마당' 프로그램을 운영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훈테마 공모사업은 호국보훈·독립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보훈마당'은 지역사회에 호국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청소년의 나라사랑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했다.

지난 13일 성정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보훈마당'에는 2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 대학생 독립리포터스와 함께 역사 속 호국영웅들을 찾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미술품을 제작했다.

3회기에 걸쳐 완성된 미술품은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소년수련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41-900-0776)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경 천안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다양한 보훈문화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천안시, 제1차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회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 논의

천안시는 지난 15일 2024년 제1차 천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소년수련관, 천안준법지원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협력방안을 강구한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청소년안정망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올해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심의를, 청소년안정망 활성화 방안 토의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김미영 교육청소년과장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방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홀몸어르신과 함께 1일 효도 여행

천안시신방동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김대건)는 지난 14일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청주시미동산수목원으로 효도 여행을 다녀왔다.



천안시 입장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특화교육 실시

입장면 주민자치위원회(회장 최대수)가 16일 충남 서천군 한산면 주민자치회를 방문해 주민자치 선진지 특화 교육을 진행했다.



배창우 충남중기청장, 천안소재 ㈜마스터 방문 기업 애로사항 청취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배창우청장이 16일 특수목적용 기계 전문제조기업인 천안소재 ㈜마스터를 방문해 김상훈 대표로부터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재)천안시복지재단 인부를 전합니다

{재}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이운형)은 1월부터 3월까지 후원금을 약 3억 7천만 원, 후원품 약 1억 1천만 원 등 후원금·품 약 4억 8천만 원을 모집했고, 배분은 약 6억 2천만 원, 962건(7,873명)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운형 이사장은 "천안시민들과 후원자분들께 재단의 인부를 전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과 사회 복지기관·시설·단체들을 위한 후원과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다"며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이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원금·품이 절실한 상황이니 천안시민분들과 후원자분들의 지속적 관심과 후원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재}천안시복지재단은 4월부터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들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사업 및 기능보강 사업,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사업 등 지역 내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스페셜 기부와 나눔인성모금' 등의 다양한 후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5월부터 '푸른약속 자활사업단' 활성화 운영

친환경·자원순환 신산업 일자리 다화용컴 세척사업 운영



천안시는 5월부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친환경·자원순환 신산업 일자리 '푸

른약속' 자활사업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식판, 컵 등 다화용기를 세

척해 공급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신일지리를 근로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

지난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한 다화용기 식기 세척·건조·살균장비를 구축했다. 시는 참여주민 스스로 전문 세척장비를 통한 세척 기술습득 후 식판, 유아식기, 공공기관 다화용컵 등 지역에 특화된 수익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및 역량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상록리조트 등 민간분야까지 다화용컵 세척사업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자원순환 공공일지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외에 자활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앙자활자금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응모하는 등 외부 지원연계를 통해 시설장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상순 복지정책과장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친환경·자원순환 신산업일지리를 제공해 근로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자활복지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현재 조건부 수급자 152명에게 7개분야 13개 사업단을 제공하는 등 탈수급을 통한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천안시서북구·동남구보건소, 천안추모공원과 업무협약 체결

자살고위험군(유족) 발굴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협약

천안시 서북구·동남구보건소는 16일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과 자살 유족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살 유족은 천안추모공원으로부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등 사업에 대해 안내받아 자살 유족이 된 초기부터 애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받게 된다.

천안시서북구·동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유족의 단계별 애

도 과정 지원과 심리 사회적 고통 경감을 위해 ▲애도 상담 프로그램 등의 심리·정서 지원 ▲법률 및 행정 처리, 특수청소, 임시주거비 지원 등의 환경·경제 지원 등 대상자 사후 관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천안추모공원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자살유족에게 적기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유족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지원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자살고위험(유족) 및 자살유족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자살예방센터

(041-578-9709), 천안시동남구자살예방센터 (041-521-33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도시공사, 2023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천안도시공사(사장 한동홍)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공기업 발전 유공 포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해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계획에 적

극 동참해 3개 사업장을 민간 이양하였으며,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KSPO 45001)을 획득해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의 공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공사는 가족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및 조직문화 혁신 등 경영개선을 실시했고, 지난해 전국시군구 지방공기업협의회 회장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간 상호 업무 공유를 통한 지치행동 생산성 향상과 경기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공도 인정받았다.

한동홍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도시 균형 발전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그간 디지털정부 구 지방공기업협의회 회장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간 상호 업무 공유를 통한 지치행동 생산성 향상과 경기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공도 인정받았다.

대한특송-천안차암초-굿네이버스 충청본부 후원금 전달식

대한특송,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며 학생 위한 장학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충청지역본부(본부장 김환재)는 지난 15일 대한특송(대표 윤주성)으로부터 천안차암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 기부금을 전달 받았다.

굿네이버스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 지원을 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전달받은 후원금은 천안차암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교육 기자재 구입 및 도서 등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대한특송 윤주성 대표는 "학생

들의 꿈을 응원하며 앞으로 사회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다면 장학금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김환재 굿네이버스 충청본부장은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의 아동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해준 대한특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교육은 모든 아이들의 기본권으로 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꿈을



그리며 배움을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굿네이버스도 아동들의 건강을 성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한특송은 전문적인 운송 서비스로 신뢰성 높고 안전한 협력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나아가 경제적 이익 추구를 넘어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공주소방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은상' 쾌거 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지난 12일, 충청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충청남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일반부 부문 은상(2위)을 수상했다.



세종소방서, 청년 대상 진로 체험·소방안전교육 세종소방서(서장 김상진)가 16일 세종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교육과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세종시청지미디어센터와 협업해 이뤄진 것으로, 세종청년센터 소속 미취업 청년 30명에게 취업역량 강화와 자신감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아산경찰서, 자랑스러운 아산경찰서 시상식 개최 아산경찰서(서장 김경열)에서는 15일, 아산경찰서 여해홀에서 2024년도 1/4분기 자랑스러운 아산경찰서 시상식을 갖고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신탄진신협, 대덕구 덕암동 경로당에 건강 인미의자 기증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신탄진신협(이사장 박천영)으로부터 덕암동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인미의자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덕암동에 따르면 신탄진신협은 지역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해 덕암동 춘광, 덕암1동 경로당2곳에 인미의자를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당진소방서, 119구조대원 및 펌프구조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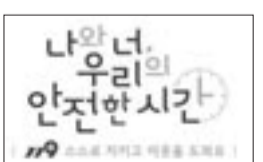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당진소방서는 지난 15일, 당진천 일대에서 119구조대원 및 펌프구조대원을 대상으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서는 실족, 조난 등 산악사고에 대비해 119구조대원 및 펌프구조대원 등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악사고 사전조치를 시작으로 산악사고 유형별 구조훈련을 진행했다.

주요 훈련내용은 ▲산악사고 발생요인 및 위험요소 현장 파악 ▲산악사고 유형별 현장대응절차 숙지 및 실습 ▲관내 산악지형에 따른 경사면 구조 등 중점훈련 ▲침단장비(드론 등) 활용 공원 및 산악지형 수색 등이다. 또한 소방서는 산악사고 저감을 위해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산악안전지도 제작 및 간이구조구급함 점검, 산악사고예방을 위한 등산요령 홍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서천소방서 '안전문화 확산 계획' 추진



서천소방서(서장 김영배)는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소방 안전문화 확산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스스로 지키고(By myself),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정부도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기관, 민간단체 등 모두가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세부 내용은 ▲5세 미만 유아기부터 60세 이상의 노년기까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교육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장애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이행 ▲취약계층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업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등이다.

화학물질 배출량 전년 대비 6.4% 감소

2022년 국내 화학물질 배출량 6만 1035t으로 집계... 발암성 물질 2.4% 늘어

2022년 국내 화학물질 배출량이 전년(6만 5213t) 대비 6.4% 감소한 6만 1035t으로 집계됐다. 다만 발암성 물질과 발암 가능 물질을 포함한 발암성 물질 배출량은 2.4% 증가한 1만 287t에 달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3832개 업체, 234종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한 결과 2022년 기준 화학물질 취급량은 19만 8590t, 배출량은 6만 1035t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해 취급량은 7.9%(1만 7130t), 배

출량은 6.4%(4177t) 각각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1686t), 펄프, 종이와 종이 제품 제조업(1155t),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014t)에서 감소했으나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1263t), 전기장비 제조업(461t), 섬유제품 제조업(354t) 등은 배출량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8.9%), 충남(17.6%), 울산(11.7%) 등 3개 지자체 배출량이 전체의 58%를 차지했고 단위 면적(1km²) 대비 배출량은

울산이 6.7으로 가장 높았다. 화학물질별로는 폴리에틸렌(16.6%), 아세트산 에틸(15.5%), 자일렌(15.5%) 순으로 이들 3개 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48%를 차지했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성 물질 70종 배출량은 2022년 1만 287t으로 2021년(1만 494t)보다 2.4% 늘었다. 발암물질(그룹1·354)은 2022년 531t으로 3.3%(18) 줄었지만 발암 우려 물질(그룹2A·19종)과 발암 가능 물질(그룹2B·38종)은 각각 3.6%(238), 0.6%(18) 증가했다.

환경부가 2020년부터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를 적용하고 있는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 9종 배출량은 7182t으로 2021년(6857t)보다 4.7%(325) 늘었다. 다만 배출 저감 계획서를 제출한 281개 사업장의 배출량은 6383t으로 6.4%(434) 감소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은 물질에 대해 화학물질 배출저감제와 지역별 협의체 등을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 배출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집중단속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된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양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상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마, 양귀비 밀경작 및 마약류 범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 추진

색각 기준 개선 및 약물(마약류)검사대상 확대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4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채용 시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도 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청에서 실시해 온 '티비피아(TBPE)'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았다. 그러나 다양한 마약이 출현하고 있으며, 마약이 국민의 건강

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어 '경찰 채용 시 검사 대상이 되는 마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은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에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하여 대표적인 마약 6종(멜로론·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을 검사 대상 마약으로 선별하였다.

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며, 올해 하반기 진단 시약을 개발하여 수험생과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하여 최종 공포되면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1표 차 당락'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무효

법원 "무자격 조합원 선거" 원고 주장 받아들여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결과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16일 유영오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가 낸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 전 후보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선거 당시 서류조작 등으로 무자격 조합원들을 선거에 참여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후보는 소장에서 "허위임대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불법편법을 활용해 조합원 가입 및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제보와 정황이 발견됐다

"며 "이에 소송을 통해 무자격 조합원 투표 사실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선거에서는 조합원 1100여명 중 922명이 투표에 참여해 박성규 후보가 461표를 얻어 당선됐다. 460표를 얻은 유영오 후보는 1표 차로 낙선했다. 형이 확정되면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정복기자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 접종

질병청, 65세 이상 예방접종도 권고... 예약없이 당일 접종 가능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은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앞서 지난달 22일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코

로나19 접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반기 예방접종은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중 2023-2024절기 XBB.1.5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야 하고 지난 절기

와 동일하게 XBB.1.5 백신으로 접종한다. 한편, 2023-2024절기 XBB.1.5 백신을 1회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 기간 내 접종할 수 있다. 15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포털(invck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에너지와 SK주유소, 대전모금회에 1억4천만원 기탁



문종필 남부사업부장, 윤찬영 팀장, 대전모금회 유재욱 회장 및 SK주유소를 대표해 이종민 심천주유소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성금은 2020년도부터 진행된 'SK착한주유소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다. SK착한주유소 캠페인은 동월기에 등유 소비가 많은 도농 지역과 연계를 SK에너지의 사회적기회 창출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등유 판매 시 1ℓ당 소정 금액을 대전모금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기부금이 조성됐다. 송병배기자



한국영상대 학생 기지로 공주소 불막아

공주소 인근 산에서 화재가 발생, 주변 경보 시스템이 없어 큰불로 번질 위험 속에서 한국영상대학교 영상촬영조명학과 주민수 학생의 발빠른 대응이 피해확산을 막았다.

주민수 학생은 인근에서 영상작품을 촬영 중,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에서 배운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사고 현장의 긴박감과 현실감을 담아냈다.

현장 인근에서 촬영하던 주민수 학생의 도움이 산불의 초기 진압에 일조하고 큰 산불로 번지지 않았고, 현장의 긴박감을 생생히 담았다는 평이다.

화재 현장을 정확히 포착한 이번 영상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영상 기록이 갖는 가치와 영향력을 새삼 상기시켰다.

지난 14일, 충남 공주소 우성면의 한 갈대밭에서 발생한 화재가 크게 번질 뻔했으나 조기에 발견해 큰 피해를 면했다. 오후 2시 50분경 시작된 불은 약 30분 만에 진화되었지만, 축구장 하나 크기에 해당하는 약 6,600제곱미터의 갈대밭이 소실되는 손실을 입었다.

주민수 학생은 "재정은 지도교수님께서 교육용 보도촬영 장비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드론을 띄웠고 현장의 긴박감과 현실감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유효했다"며 "이번 촬영으로 영상보도활동에 대해 더욱 흥미가 생겼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습 커리큘럼에 더 집중하려 한다"고 다짐했다.

이런 계기로 한국영상대 영상촬영조명학과는 더욱 심도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중심의 실습을 통해 미래의 영상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정성빈기자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s 18th anniversary. It features the text '대전투데이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Daejeon Today's 18th Anniversary Congratulations) and '당진교육지원청은 미래교육으로 꿈을 이루는 당진교육을 지향합니다.' (Daejeon Education Support Office aims for Daejeon Education with future education to realize dreams). There is also a logo for 'EduGreen' and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Chungcheongnam-do Daejeon Education Support Office).

“교사 96%, 세월호 참사 기억 위한 수업 필요”

전교조, 전국 유·초·중·고교나 교육행정기관 근무 교사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전국 유·초·중·고 교사 100명 중 96명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9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전국 유·초·중·고교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사 96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4.16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4.16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교사 95.9%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은 ‘416 세월호참사를 제대로 추모하고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였다”라며 “한편으로,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 당국과 학교가 세월호 참사 수업을 지원하고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76.4%의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교 수업에 참사 관련 교육자료 제공 및 수업 안내, 교육부 차원에서 각 학교에 416계기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할 제언했다.

세월호 참사 후 시행한 정부 교육정책들이 ‘참사 피해자 보호와 생명 안전 사회로 가기 위해 실효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정책에서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정책 중 ‘국민 안전의 날 및 안전 주간 운영’은 응답자 65.3%가 부정으로 답하며 가장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안전 관련 교사 법정 의무 연수 확대(63.4%), 안전 교과 설치(56.5%),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요건 강화(46.6%), ‘생존수영 의무화’(40.9%), 참사 피해자 제적이 아닌 명예졸업 학적부 신설(28.0%) 순으로 응답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으로는 참사 피해자 제적이 아닌 명예졸업 학적부 신설(62.0%) 생존수영 의무화(55.0%),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요건 강화(50.3%) 순이었다.

‘수업 등에서 지난 10년 동안 학생들과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6.6%였다.

학생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를 이야기 한 방식으로는 개인 차원에서 수업 및 교육활동(79.1%), ‘조종례 시간 등을 활용한 훈화’(35.1%), 학교 차원에서 수업 및 교육활동(32.0%)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13.4%는 세월호 참사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은 교사들은 그 이유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서’(50.0%), ‘수업 시간에 다루기에 민감한 주제라서’(43.8%), ‘민원에 대한 염려’(35.9%), ‘교육 당국 및 학교 관리자의 반대’(4.7%)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이유로 ‘마중문 입부로 고민할 시간이 없어서’, ‘참사의 이유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아 잘못 접근했다가 항의받을까 봐’, ‘나 자신이 마음이 아파서’ 등 응답도 있었다.

세종시교육청,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안전한 사회로 가는 교육적 역할 제고를 위해 다시는 시간 가져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이날 1일부터 26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정하여 416 기억의날, 추모 사진전,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기억공간 운영 등 여러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16일 오전에 분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을 실시하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은 추모 묵념, 추모 시 낭송, 추모 영상 시청 등

으로 진행되었다. 직원들은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지난 10년 동안 겪었을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 직원들은 세월호 참사를 사회적 기억 유산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안전한 사회로 가는 교육적 역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함께 다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5일에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순직한 선생님들의 숭고한 정신과 뜻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교육감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들이 대전현충원 세월호 참사 순직 교사 묘소에 방문해 참배했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임마들로 구성된 연극단을 초청해 연극제를 개최하는 등 기억의 달 행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세종=김태성기자



백제중, 버스킹 동아리 ‘인공위성’의 이름다운 공연 백제중학교(교장 이준석)는 2024학년도 버스킹 공연을 열었다. 인성교육을 교육활동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기 위해 백제중학교는 2019년부터 꾸준히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인공위성이라는 자율동아리를 만들어 버스킹을 진행한다. 2024년 4월, 벚꽃이 만개하는 날 후동 앞에서 진행된 버스킹 공연에 대한 호응은 너무 뜨거웠으며 점심시간 교내 학생들의 이름다운 노래로 가득 채워졌다.

당진정보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이해 캠프 실시



당진정보고등학교는 지난 12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계고등학교 학점제 운영 배경과 운영 과정에 대한 이해 캠프를 진행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 본격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당진정보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운영했으며, 학생들의 직업계고 학점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 향상 및 교내 취업 분위기가 한층, 체계적인 교내 진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 학교별 이해를 통한 진로준비 및 취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본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당진=최근수기자

첫 시간에는 [직업계고 고교학점제의 이해] 기초과정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세부 전공 안내를 통해 시간에는 [선호학과 탐색] 고교학점제 카드 탐색, 세 번째 시간에는 [셀프 진학 상담]이나 더 비밀상담소, 네 번째 시간에는 [선택과목 플래닝] 학업계획서 작성, 마지막 시간에는 [NCS 직무탐색] 직무매칭 박게임 [CODE 5]로 마무리했다.

캠프는 고교학점제 카드, NCS 직무카드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임형태로 진행되었다.

당진정보고등학교는 회계사무과 5학급, 유통물류과 4학급 총 22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산화제형 도제반을 특화해 운영하고 있다.

조상연 교장은 “이번 캠프를 계기로 사회진출에 필요한 열정과 도전정신, 동기 부여와 함께 자신감과 자존감을 고취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양교육지원청, 작년 2교에서 올해 1교 추가

‘청양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공모 3교 선정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진기성)은 지난 12일, ‘2024 청양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사업 운영 공모(모집기간: 3.28~4.5)에 지원한 단체를 대상으로 외부 위원 및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마을학교 3교를 선정했다. 청양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는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교 밖 마을 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사업으로 작년 2교에서 올해 1교가 추가되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학교는 ▲화성면 화성마을학교 ▲대치면 놀자마을학교 ▲정산면 예술가의집-미술특성화마을학교다.

이들 3교는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인근 학교의 학생을 위한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로써 마을과 학교가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성장하는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

청양=정상범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해피바이러스봉사단 준비 완료

본격적인 봉사 활동을 위한 교육 받아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석)에서 운영하는 해피바이러스봉사단은 지난 13일 논산중학교 학생 25명과 논산면 거점 활동가가 함께 참가하여 본격적인 봉사 활동을 위한 손마사지와 네일아트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논산=김성구기자

천안교육지원청, 해결 방안 모색·민주적 의사결정 확대하고자

‘학교업무최적화 배움자리’ 실시

천안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16일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소공연장에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강, 교무부장교사, 교무행정)을 대상으로 학교업무최적화 배움 자리를 실시했다.

25여명이 참석한 이번 학교업무최적화 배움자리는 학교 내의 업무 갈등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천안=이정복기자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위기학생 지원 강화

충남교육청, 학교 관리자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생명지킴이 교육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우울 등 정신건강 위기에 빠진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생명존중 및 생명지킴이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보내는 언어적, 신체적, 상황적 신호를 알아차리고 위험성을 파악하여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기양성 과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4월 16일 공주한국문화연구원 대강당에서 충남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관리자(교장) 110여 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과 위기 발생 대응 전략 교육을 진행하였다.

위기 대응 전략 교육은 단국대학교병원 김경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강의로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사전 예방 ▲위기 개입 ▲사후 치료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급변하는 시대상에 따라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위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학교에서 학생의 위기 신호를 신속히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단위 학교 관리자에 대한 교육으로 학교가 위기 학생을 빠르게 발견하고 학생에게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정환기자

예산교육지원청, 윤봉길의 삶과 의를 배우다!

윤봉길청소년단 발대식 및 리더십캠프 실시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예산군 청소년수련관과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일원에서 2024학년도 윤봉길 청소년단 발대식과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

예산교육지원청 윤봉길 청소년단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1년을 맞이한 청소년 단체로 고장의 역사 인물 ‘윤봉길’의 삶과 의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가 실천한 독립 운동의 업적

과 발자취를 체험하며 성숙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을 돕는 특색 사업이다.

윤봉길 청소년단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별 추천 과정을 거쳐 총 71명의 학생이 선정되었으며, 발대식과 리더십 캠프를 통해 윤봉길 의사의 나라 사랑 정신을 본받고 더인하고 이 뜻을 배려하며 평화와 공존의 삶을 실천하고자 다짐했다.

예산=박재희기자

서천도서관, 서천독서가치 인문학 특강

2024년 책읽는 서천교육인문학 강좌 운영



인문학 특강을 운영한다.

서천독서가치는 독서문화를 활성화 하는 책 읽는 서천교육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통해 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독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마련되었다.

첫회는 지난 4월 15일 「니들의 시간」 김해자 시인의 북토크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5월 「그냥 밥먹자는 말이 아니었는지 몰라」 양희경 작가 ▲6월 「행사 박미옥」 박미옥 작가 ▲7월 「말하거의 태도」 김민식&강원국 작가 ▲9월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황보름 작가 ▲「저주토키」 정보라 작가의 강연이 차례로 이어질 예정이다.

서천독서가치는 충남도민, 서천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일 15일부터 평생교육정보시스템(www.nall.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도서관(041-953-15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다양한 작가들과 교류하고, 독서와 인문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천=이정복기자

로봇 ‘알버트’와 함께하는 AI 맞춤형 교육

대전교육청, 대학연계 고등학교 특수학급 코딩교육 운영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진로 설계 역량 강화와 직업적성 발굴 기회 제공을 위해 배재대학교 AI·SW중심대학사업단과 연계하여 코딩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AI 로봇 활용 알버트 코딩 프로그램은 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교구와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방문형 프로그램이다. 카드 코딩으로 로봇 알버트를 움직이고 컨트롤러 앱

을 사용해 로봇 조작 방법을 알아봄으로써 학생들이 코딩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교구를 조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코딩교육팀은 대학교 수 및 코딩교육전문가, AI·SW봉사단으로 구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4월부터 7월까지 대전외교를 시작으로 충남기계공업고, 대전반석고, 대전구룡고, 대전괴정고, 대전고, 우송고 총 7개교 특수학급 90명의 학생이 참가할 예정이며, 학교당 1회(4시간씩) 운영한다.

대전교육청 윤정병 유초등교육과장은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 AI 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학과 연계한 AI·SW 협력사업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남부출자소 국방벤처기업 13곳 신규 지원

道, 16일 충남국방벤처센터 신규 지원 기업 협약

충남도 남부출자소는 16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방산 분야 13개 중소벤처기업과 충남국방벤처센터 신규 협약을 체결했다.

이만호 도 남부출자소장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장, 협약기업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이번 협약식은 협약서 서명, 기업 소개,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와 논산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동 운영하는 충남국방벤처센터는 2019년 설립 이후 총 56개 기업과 지원 협약을 맺고 ▲국방과제 발굴 ▲국방기술 개발 ▲교육 및 판로 확보 등 방산 분야 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지원 기업은 총 69개사로 늘었다.

이번 협약에 체결한 기업은 선진과워테크, 드론테크, 정진에어로스페이스, 세한에스디에이 이엔지(세한SDA ENG), 동진포터텍, 케이스, 에스에이씨, 프로메카, 퓨터테크, 코펜엔지니어링, 유피씨, 선진

특장, 한울드론으로 우주 항공·방산 부품 분야 기업 등 총 13개사다.

이번 협약으로 13개 기업은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개발품에 대한 사업화, 부품 국산화, 경영 및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협약식 이후에는 도내 방산 분야 기업 간 모임 활성화를 위한 충남방산기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기업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충남방산기업협의회 초대 회장에는

문상인 대일공업 대표가 부회장에는 이승영 비즈로빌릭 상무(북부지역)와 이준평 극동통신 전무(남부지역)가 각각 위촉됐다.

이어 이날 참석자들은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열 전지 관련 기업 비즈로빌릭을 방문해 시설 등을 살펴보고,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했다.

이 소장은 "우수한 도내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국내외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노후정수장(합덕) 정비사업 본격 착수

당진시, 총사업비 250억 원 확보, 전면 재정비로 깨끗한 물 공급

당진시는 합덕정수장을 정비하기 위해 국비(환경부)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약 250억 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당진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합덕정수장은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고 있으며, 1978년 준공된 노후정수장으로, 그동안 수도법 개정으로 높은 정수 처리기준을 따라야 하나 시설이 낡아 어려움이 있었다.

당진시는 합덕정수장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환경부, 충청남도에서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2024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의 50%를 국비 지원받아 최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 체결하며 본격적

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합덕정수장은 그동안 2,400m³/일 시설 용량으로 운영했으나,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3,000m³/일 시설용량으로 재건설할 계획이며, 당진시는 600m³/일 증설로 약 2,300명에게 추가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진시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토지 보상과 설계를 마무리하고 인허가를 추진하고, 2025년에는 공사를 시작해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며 "낡은 합덕정수장을 전면 재건설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공주시 지속가능한 환경농업 실천단지 조성 박차

오이 재배 농가 작기별 토양, 농업환경 분석을 통한 종합기술 투입



지난 3월에는 스마트작목반 농가를 대상으로 12월간 오이 생육진단과 토양, 농업용수, 작물물 시료를 채취해 산도(pH), 염도(EC), 잔류농약 463성분 등 작물생육 관리에 필요한 항목들을 분석했다.

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비 처방서에 따른 비료와 오이 작목에 맞는 병해충 방제 농약, 오이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진단키트를 지원하고 사용 방법과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오석주 스마트작목반장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오이 재배를 해왔는데 데이터를 기반한 종합 분석 기술을 활용한 농법으로 전환한다면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해서 생산량이 증대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희영 기술보급과장은 "이번 기회에 데이터를 기반한 정밀농업을 실천해 적량의 비료와 등록 농약 안전사용을 통해 고품질 오이의 가치를 높이고 앞으로 사업을 더 확대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오이 시설재배 농가도 이뤄진 스마트작목반 10개 농가를 대상으로 작물의 토양·생육관리(토양 환경, 병해충 진단 등)와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지속가능한 환경농업 실천단지 육성은 2024년 세시책 사업으로 시설채소 특화작목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대응 농산물 안전성 관리와 연작장애 지속 관리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오이 생산 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가정의 달 맞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점검 실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부당 표시·광고 행위 등 중점 단속



수사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제품 선택 시 4가지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정마크 확인하기 ▲영양·기능 정보 확인하기 ▲허위·과대광고 멀리하기 ▲혜의제품은 한글 표시사항 꼼꼼히 보기도 함께 함)을 당부했다.

특히 가족에게 선물할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고를 때는 제품의 유통기한과 영양·기능정보, 부당한 광고 여부 등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군민이 군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홍성군보건소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한 제품 유통과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군 보건소는 지난 12일까지 판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아산시 행복키움-7개 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아산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일상생활 유지가 힘든 가구의 강박장애를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복지과 이기서 과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각 기관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이 단순히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희망을 선물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아산시는 2020년 3월 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중이며 2023년에는 74개의 기관에서 291명의 도움으로 9가구를 지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아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채종병), 행복키움추진단협의회(회장 송현순), 코리아에코21(대표 신에란), 홈엔지니어링(대표 이은영),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기창)

이런 협약은 사회복지과, 자원순환과,

아산시 쌀 생산성 혁신을 위한 설명회 열려

아산시는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 지식농업관에서 '쌀 생산성 혁신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쌀전업농아산시연합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경귀 시장이 직접 '농경분야 5대 혁신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인 생산성 혁신을 위한 전략적 가치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먼저 아산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통합 RPC 설립을 언급했다. "RPC 규모화, 일원화를 통해 아산쌀은 쌀 품질 생산성 등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가공, 유통까지 전과정 통합하여 단위 RPC 운영상 발생되는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전략은 아산쌀은 쌀 상품종인 아산맑은벼 재배단지 확대를 제시했다. "기존 영인, 둔포 중심에서 인주, 선

장 등 단계적 편입하여 재배단지 확대할 것"이라며 "해맑은벼 전환 시 40kg당 3,000원의 전량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농촌인구 감소·고령화 추세에 따른 벼 생산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기존 이앙 기술에서 직파로 바뀌 나가야 한다"면서 "직파재배를 위한 장비 및 기술지도 등 적극 지원하여 벼 직파재배 단지 확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해맑은벼 재배를 위한 농업인 핵심 실천 사항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 이후에도 상품종 안정재배를 위한 해맑은벼, 달맑은벼 '아산맑은쌀 원료곡' 재배 기술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후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 사업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식약청 식중독 신속대응 모의훈련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충남 부여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시·군·구·시·도 교육청 등의 식중독 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2024년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식중독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보고, 관계기관 전파 등 식중독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훈련 현장에서는 식중독 발생 확인 후 식중독 의심환자 신속보고 등 전과체계를 확인하고, 식중독 조사관이 식중독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수행하는 보존식·조리기구 등 환경검체 채취와 환자의 인체검체 채취 등 역학조사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훈련해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증상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식중독 예방교육 등 식중독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최근 삼포별리군에 오염된 달걀로 인해 음식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훈련 현장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최대원 식품소비안전국장도 참석해 식중독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업무담당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품목	단위	가격	비고
쌀	100kg	1080원	23% 내린 1080원에 거래됨
향후	향후	향후	향후
...

AT 대전세종충남본부

'이번 주는 얼마유?' (4월 셋째 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AT, 본부장직무대리 민경후)는 대전지역 농수산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지원하고 전통(역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동네 장바구니 물가정보 '이번 주는 얼마유?' (4월 셋째 주)를 발행했다.

AT 관계자에 따르면 "청양고추는 봄철 생육 요건이 개선되며 산지 출하가 원활하고 반입 물량이 증가해 상품 100g 기준 지난주 대비 23% 내린 1080원에 거래됐으며, 향후, 청양고추 주요 출하 지역인 영남, 호남 지역 재배 규모 확대로 산지 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 안정화세가 전망된다."고 전했다.

반면, "배추는 조중생종 저장배추 출하 마무리로 반입 물량이 감소해 상품 1포기 기준 지난주 대비 21% 오른 8500원에 거래됐으며, 향후, 월동배추는 저장 재고 소진으로 출하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봄배추는 생육 부진으로 출하가 지연되어 당분간 배추 공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의 강보합세가 전망된다."고 전했다.

송병배기자

예산군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예산군은 16일 예산 우체국과 폐 의약품 회수 우편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폐 의약품 회수 우편 서비스는 주민이 봉투에 밀봉해 우체통에 투함한 폐 의약품을 우체국에서 회수해 지자체로 배송하는 서비스로 투기 되는 폐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해결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각 기관 대표자는 폐 의약품 회수·배송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과 기관별 역할을 규정하고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수행할 것을 협약했으며, 지속적인 홍보 등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편 서비스를 활용한 폐 의약품 회수 체계 구축으로 수거 처리 확대에 따른 주민 편의 증가와 회수율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집중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사용 폐 의약품은 가까운 우체국 및 각 읍면 행정 복지 센터나 약국, 보건소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으로 배출해주시기 바란다"며 "전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예산=박재희기자

동정 시상식



박경규 아산시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2024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투자유치부문대상 시상식'에 참석.

새마을의 날 기념식



오성환 당진시장은 17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0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오후 3시 30분, 대강당에서 '2024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

위촉식



가세로 태안군수는 17일 오후 1시 30분 고남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고남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식'에 참석.

교육



김돈곤 청양군수는 17일 오전 9시 청양군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익형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에 참석.

백사장항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

가의도북항·가경주항 이어 태안 세 번째 준공지로 이름 올려... 황금빛 미래 활짝 2019년 12월 선정... 65억여 원 들여 다목적 어민회관·어구창고 조성 등 성과

꽃게랑 대하랑 육교로 유명한 충남 태안 안면도의 백사장항이 '어촌뉴딜300 사업'을 마침내 마무리 짓고 환금빛 미래를 열었다.

군은 지난 15일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가세로 군수와 어촌어항공단 관계자, 정일중 국회의원과 도·군 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준공식을 겸한 '백사장항 어촌뉴딜300 사업 한마음 대잔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로 지어진 다목적 어민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경과보고와 감사패 수여, 주민대표의 기념사와 가세로 군수 등 주요 내빈들의 축사에 이어 사업의 마무리를 알리는 테이프커팅이 진행됐다. 백사장항은 지난 2019년 12월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으로, 2021년 가의도북항(8월)과 가경주항(12월)에 이은 태안군의 세 번째 준공지로 이름을 올리



게 됐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9년부터 어촌마을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추진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사업 선정 시 국비 70%가 지원된다. 태안군에서는 백사장항을 비롯한 10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돼 총 사업비 75억여 원을 확보하는 쾌

거를 거뒀으며, 이번 백사장항 사업에는 총 65억 1600만 원(국비 45억 6100만 원, 도비 5억 8600만 원, 군비 13억 6900만 원)이 투입됐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450㎡ 규모의 어구창고 및 건조장을 조성해 어민들의 어업 편의성을 높였으며, 부잔교 2곳을 교체하고 500㎡ 면적의 다목적 어민회관을 조성해 주민 화합을 도모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당진시 하절기 친환경 연무소독

오는 11월까지, 관내 해충 서식지·위생취약지역 등

당진시보건소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모기 등 해충의 활동 시기가 빨라져 지난 15일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해충 서식지 및 위생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을 추진한다.

보건소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소독 추진을 위해 각 읍·면·동을 12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담당 소독 전문 업체(소독반)를 지정했으며, 또한 연초 이·통장단 협의체를 통해 마을별 취약지역과 민원 발생지점을 조사해 이번 소독 노선에 포함했다. 앞서 3월 초 해빙기에는 성충의 초기 산란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 정화조 등 유충 서식지 5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유충구제 방역을 진행했다.

연말 소독은 경우·등유에 살충제를 희석해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연기로 인한 시야 가림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했으나, 연무소독 방식은 물에 의류용 살충제를 희석해 연기가 적고 살충제의 살포 입자가 커 해충 치사 효과가 뛰어나다.

보건소에서는 연무 소독을 권역별로 주 3~4회 실시하고, 천변, 공원 등 다중이용 지역에 설치된 친환경 해충 유인 포충기 186대도 운영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동·여성친화도시 인증 현판식 열려

당진시, 아동친화도시상위단계 인증·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당진시가 지난 15일, 시청사로 (2017~2022) 지정을 거쳐 3단계 (2023년~2027년) 지정을 앞두고 제도 변경으로 인해 여성친화도시 신규 협약도시로 지정되었다.

이번 인증으로 아동친화도시는 2028년까지 여성친화도시는 2027년까지 인증 자격이 유지된다. 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꿈을 꾸는 도시, 여성이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동친화도시상위단계 인증·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이동친화도시상위단계 인증·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오성환 시장은 "그동안 당진시는 아동과 여성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 당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박경규 시장 '이순신 장군 도박게임 도용?' 정식 항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도박 게임이 세계적으로 유행되면서, '이순신의 도시'를 자처하는 아산시가 게임시를 상대로 정식 항의에 나설 예정이다.

박경규 아산시장은 15일 열린 주간간담회에서 "아산시는 이순신 축제를 준비하고 웹툰 제작 등 선양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도시"라며 "이렇게 장군을 폄하하고 불명예를 안기는 도박게임이 만들

어진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한 게임사는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YI SUN SHIN'이라는 이름의 슬롯게임을 출시, 온라인에서 유통하고 있다.

해당 게임에서 이순신 장군은 중국 갑옷을 착용한 채 게임머니를 따면 "승리는 나의 것이다. 준비 발사", "조국을 위하여 이순신이 돌아

왔다" 등의 한국어로 도박을 지휘하고 있다. 언론들은 이를 소개하며 이순신 장군과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경규 시장은 "온라인 도박은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불법이다. 게다가 이순신 장군이 중국 풍 갑옷을 입고 도박을 지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장군의 명성만을 이용해 지극적으로 도박게임을 만들었다"고 분개했다.

이어 "아산시는 이순신 장군을 선양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폄하를 막는 수호자의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 "공식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게임 회사에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또 박 시장은 "민선 8기에 들어 '농정분야 5대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농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농민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옛 선장역-화성역 장항선 폐철도 2.5km 구간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차길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색있는 힐링코스를 만들어서 도고온천 활성화를 이끌 명소로 탄생시켜야 한다"고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투자유치 기업 대상 지속적인 지원 관리 ▲이순신축제 청사조동 같은 축제별 상징 설치물 고안 ▲아트밸리 아산 유스밴드 군악의장대 패스티벌 참가 관련 영상 제작 ▲이순신축제 정부세종청사 게릴라 홍보 안전 등을 당부했다.

또 ▲시그니처한복 대여사업 팸투어 추진 ▲다함께들봄센터 추가 설치 대상지 조사 ▲인사 공정성 체감도 향상 ▲영인산 철쭉제 홍보 집중 ▲배방 북수지구 도시개발 주민설명회 적극 관여 ▲아산밖은쌀 밥집 육성 내실화 ▲시립합창단 외 전문 뮤지컬단 구성 등도 지시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874명 위촉

태안군, 8개 읍·면 이장과 생활업종종사자 등

태안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8개 읍·면 주민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한다.

군은 8개 읍·면 이장과 생활업종종사자 등 주민 총 874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키로 하고 15일 근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세로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보호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위촉에 나섰다

15일 진행된 근흥면 위촉식에서는 주민 총 104명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됐으며, 이어 ▲16일 이원면(78명) ▲17일 고남면(94명), 안면읍(114명) ▲18일 남면(110명) ▲23일 태안읍(152명) ▲24일 원북면(107명) ▲26일 소원면(115명) 순으로 읍·면별 위촉이 진행된다.

874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를 비롯해 생활업종 종사자,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경로당 회원, 주민자치회 위원, 전(前) 공무원, 자원봉사단 등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임기 중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하고 상담 및 각종 지원 서비스연계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군은 위촉식에서 위기가구 발굴·체보 요령 등 역할수행 관련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등 이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위촉식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올해 하반기 전문강사를 초청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들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태안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충남도립파크골프장 조성에 지역주민 함께 발맞춰

청양군 남양면, 파크골프 발전협의회 발대식 열려



청양군 남양면(면장 김성수)은 지난 15일, 이장 및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남양면 파크골프 발전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전협의회는 충남도립파크골프장 조성과 함께 연계해 남양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구성되었다.

남양면 기관단체 4명의 공동대표(체육회장, 주민자치회장, 이장협의회회장, 새마을협의회장) 및 각 마

을 이장 등 총 37명의 위원들이 위촉되었다.

발전협의회는 설립은 충남도립파크골프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이장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체 구성 및 지역 발전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수 남양면장은 "충남도립파크골프장 착공이 본격화되면서 이와 함께 연계해 건설적인 남양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더하자"라고 전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정산3·1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청양군, 주민 학생 등 600여 명 참석

정산3.1만세운동현충회(회장 복상교)가 지난 15일 주관한 '제24회 정산3.1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우천으로 인해 정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정산면 등 4개 면 주민, 학생, 유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행사에 앞서 3.1만세운동기념탑 앞에서 엄숙하게 제향식이 봉행되었으며, 초헌관 김돈곤 군수, 아헌관 서정미 충남서부보훈지청장, 종헌관 이진우 청양군보훈단체협의회장이 순서를 올렸다.

식전행사로 유년선 무용단에서 지도한 정산노인대학, 청양초 중등학생 무용 공연이 이어졌고, 이후 극단청양에서 '청양의 함성 독백을 외치다'란 주제로 상행극을 펼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기념식에서는 ▲글짓기 포스터 최우수 수상 장수여 ▲현충회장의 기념사와 김돈곤 군수를 비롯한 내빈 축사 ▲정산면장의 약사보고, ▲정산초교장과 정산초중고 학생의 기념독립선언서 낭독 ▲정산이장협의회장의 우리의 다짐 ▲3.1절 노래 제창 ▲문화원장의 만세삼창이 진행되었고 끝으로 8361부대 3대대의 조총발사도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김돈곤 군수는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 가슴 속에 뿌리내린 선열의 애국, 애향, 애민정신을 원동력으로 그날 선조들이 만세운동으로 하나가 되었던, 우리 군민도 하나 되어 지역공동체 회복, 다함께 만들어 가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면서 밝은 미래로 나가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시민공청회 열려

계룡시, 공청회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청취 예정 단순 병렬식 구성에서 벗어나 스토리 중심의 전시·체험 복합공간으로 조성

계룡시(시장 이용우)는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관련 공개토론회(이하 공청회)를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계룡병영체험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관련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룡시는 국민친화형 군사박물관으로서 '대한민국 군인의 일상이 박물관으로 들어가다'라는 구호와 함께 기존의 전쟁 중심의 병렬식 구성에서 벗어나 스토리 중심의 전시·체험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로봇을 비롯한 군사과학과 우주전장 등 미래 국방 안보에 대한 내용을 전시해 현대 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사례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청회를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는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기본계획안 발표와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5월 초 최종보고와 함께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작년 10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4명의 민간 자문위원을 구성해 전문가 자문과 부시장 주재 월간보고, 육·해·공군 박물관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을 방문해 유물조사 및 박물관 운영 관련 사항을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전국 만 10세 이상 국민 105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박물관 건

립에 보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5월부터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용우 시장은 "국립군사박물관 건립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 나갈 계획"이라며 "나라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뿌리를 조명하고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박물관 건립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등정 개소식



김기웅 서천군수= 17일 오전 11시 서천봉의마루 광장에서 열리는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오후 2시 비인면 관리 354-12 일원에서 농업 기계임대사업 서부본소 개소식에 참석.

청년 위한 '청년홈페이지'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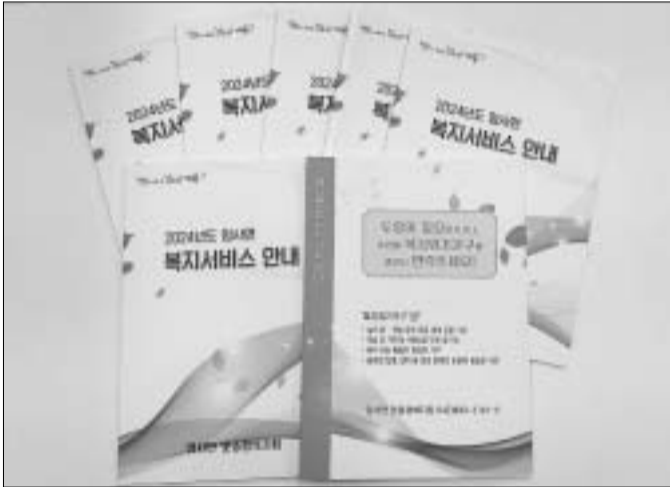
서천군, 맞춤형 온라인 청년 서비스 강화

서천군이 청년들을 위한 '서천군 청년 홈페이지' (<https://www.seocheon.go.kr/scyouth/>)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천군 청년홈페이지는 청년들의 정책 제고도를 높이고자 관내 청년정책, 청년기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 제공과 청년들의 직접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소식, 커뮤니티 등 양방향 소통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분야별 맞춤형 사업 안내와 진행 상황 알림 등 한눈에 청년정책을 알아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으며,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는 반응형 페이지 구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구현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정책 홍보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진행되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롭게 구축된 서천군 청년홈페이지가 청년들에게 잘 빠르게 제공하여 지역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서비스 안내서 제작 배포

계룡시, 7개 분야 총 81개의 다양한 복지정보 한눈에

계룡시 읍사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윤광근)는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복지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영유아·아동 ▲임신·출산 ▲청소년 ▲여성·가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등 7개 테마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문의 사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책자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와 읍사면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비치하고 복지취약가구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윤광근 면장은 "복지정보를 한눈에 보기 쉬운 안내서 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복지 혜택이 빠짐없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지역 주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알찬 정보를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알리는데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서비스 안내서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 발견 시에는 읍사면 맞춤형복지팀(042-840-3162)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천군보건의료영양플러스 사업 설명회 개최 서천군보건의료소(소장 이문영)가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라 오는 19일 서천군 치매안심센터에서 태아, 영유아, 임신부,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설명회를 추진한다. 보건소는 올바른 식습관 정립이 미래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중요성을 인지해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초청해 태아 단계부터 유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식습관과 식품 지원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문영 소장은 "이번 설명회가 임신부와 영유아를 둔 가족들에게 영양관리 지원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건강한 모성과 영유아 복지, 보건에 중요한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역대급 인파 몰린 "2024 부여 문화유산 야행" 성료

초대박터트린 부여 문화유산야행, 관람객들 호평 일색



부여군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정림사지 일원에서 개최한 '2024 부여 문화유산 야행'이 섬세한 볼거리 관람객들의 호감을 만족시키며 초대박을 터트렸다고 16일 밝혔다.

화장한 날씨 속에서 부여 문화유산 야행을 즐기기 위해 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수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즐겁고 행복한 봄밤을 즐겼다.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던 이번 행사는 낮이진 담과 단정하게 정리된 정림사지의 고즈넉한 매력이 조화로운 행사장 배치, 아름다운 경관조명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울러 풍성한 체험·공연 프로그램 등이 더해져 온전히 있고 낭만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수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즐겁고 행복한 봄밤을 즐겼다.

특히, 정림사지 주변으로 조성된 영롱한 등불을 따라 80여(夜) 테마의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 중 '백제의리만양전 퍼즐투어', '해설사와 함께하는 사비백제 스토리투어'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실감나는 문화유산 설명과 현장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백제시대로 떠나보는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백제복식 착용 후 직접 제작한 소원등을 들고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돌아보는 '정림사지 오층석탑 소원 탑돌이'와 세도 가회리 장군제의 의미를 담아 역운을 풍이기에 적은 후 물에 넣으면 녹아 없어지도록 기획한 '가회리 장군제 액행복 기원 프로그램'으로 매우 의미가 깊었다.

그중 어린이가 아니라도 보부상 장터는 미니 패랭이모자를 쓰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아나바다를 실천하는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 외에도 기후 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폐현수막이나 플라스틱컵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 등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들도

진행되었다.

부여 문화유산 야행은 매년 성장하여 이제 관람객들이 찾아올 정도로 이룬 문화유산 활용 행사로 되었다. 특히 올해는 많은 지자체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그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문화재활용 기획사 양성과정을 통해 육성된 지역민들과 문화유산 활용 단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 업체 및 상인들의 소통과 협력으로 행사를 준비하여 더욱의미 있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당일 일정으로 행사장을 찾았으나 하루 더 머물기로 했다는 한 관광객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깨끗하게 잘 관리된 행사장이 인상적이었다"라며 "많은 인파 속에서도 질서 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된 점은 많은 행사장을 가봤지만 부여가 단연 최고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 문화유산 야행을 찾아주시고 함께 즐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내년에는 10주년을 맞는데 더욱 정성껏 준비하여 많은 분들이 문화유산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삼성웰스토리-수원원협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국내 굴지 대기업 대상 유통망 확장 성과 두드러져



논산시(시장 백성현)의 농특산물 유통망·판로 개척 노력이 굴지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이어지며 혁혁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논산시는 더 잘사는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삼성웰스토리(사장 정해린), 수원지구에 농협(조합장 이용학)이하 수원원

협)과 손잡았다.

시는 지난 15일 삼성웰스토리 본사에서 단체급식 및 식자재유통 전문기업인 삼성웰스토리, 수도권 유통 거점의 역할을 해 줄 수원원협과 함께 지역산지 기반의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논산시의 삼성웰스토리, 수원원협 간 우수 산지 조성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지속형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동 협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지역 농산물의 기업 간 거래 채널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논

산시는 삼성웰스토리에 양곡 및 열채류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삼성웰스토리는 논산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식자재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기호를 충족하는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하여 전국 급식 사업장 및 식자재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의 자부심인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전국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열렸다"며, "삼성웰스토리, 수원원협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농업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농업인이 행복한 논산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웰스토리는 연매출 2조 8,637억 규모의 국내 대표 식음 서비스 기업으로 고객 및 파트너사의 식음 비즈니스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시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식음산업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감원에 따른 보건지소 순회진료 실시

부여군보건의료소는 올해 13명의 공중보건의사의 복구가 완료되었으나 5명이 감축된 8명만 신규 배치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미배치된 보건지소에 대해 순회 진료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사 집단 과업으로 공중보건의사가 감 배치됨에 따라 의과와 치과는 각각 9명, 3명이 배치되어 근무할 예정이다. 이는 12명, 5명이 근무하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각각 3명, 2명이 줄어들었다.

특히 농촌지소의 주변 진료 과목인 의과 부분 공중보건의사가 크게 감축됨에 따라 관내 15개 보건지소 중 7개 보건지소에 의사를 배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의과 부분 공중보건의사는 부여군보건의료소와 규암보건지소에 배치한 후 나머지 14개 보건지소

에 대해서는 순회 진료하기로 했다.

오는 4월 15일부터 내산, 구룡, 초촌, 옥산, 세도, 양화, 장암보건지소는 주 3회, 외산, 은산, 석성, 홍산, 임천, 충화, 남면보건지소는 주 2회 진료한다.

또한 치과 진료도 부여군보건의료소 오전만 진료한 후 구룡, 세도보건지소는 월, 화, 금 주 3회, 내산,

임천보건지소는 수, 목 주 2회 진료할 계획이다.

김점순 보건소장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면 단위 지역주민들의 유일한 의료기관이 보건지소지만 공중보건의사 감원되어 일부 보건지소에 의사를 배치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라며 "불가피하게 순회진료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주민정보를 철저히 하여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규기자



선사시대로의 시간여행 '제6회 부여 송국리 청동기축제'

부여군 초촌면(면장 황대진)은 다가오는 19-20일 부여 송국리유적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회 부여 송국리 청동기축제'의 개막을 앞두고 안전대책 마련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부여송국리유적정비지원추진위원회(위원장 이창노)를 중심으로 협업 부서인 안전총괄과, 부여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시설, 전기, 소방 분야 등에서 축제 전반에 걸쳐 미비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였다. 또한, 안전관리 요원과 구급요원 배치, 교통질서, 주변 환경 정비 등의 사항도 살폈다.

한편, 2006년부터 명맥을 이어온 '부여 송국리 청동기 축제'가 올해 제16회 풍년기원제와 통합 추진되면서 의미와 볼거리가 더욱 풍부해졌다.

19일, 추암리 두레종장의 길놀이와 함께 풍년기원제 제례행사를 시작으로 축제가 개막한다. 12일 전북 정수원에서 직접 채수한 뜬샘물 물과 백마강 물을 합수하면서 한해의 풍년농사와 마을 주민의 안녕을 기를 예정이다.

이후, 선사시대 성화봉송, 청동기 식문화 체험, 떡메치기, 난타공연 등 프로그램이 다채롭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물동이 나르기, 장던지기 수렴체험, 선사인의 밤 화합한마당 등이 진행되어 재미를 선사한다.

20일, 인국한 해설사와 함께하는 송국리 일원 둘레길 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고사리 딱기 체험과 역사투어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장구난타, 하모니카, 색소폰 연주와 더불어 초대가수의 축하공연으로 무대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질풍공예, 새끼꼬기, 유적발굴, 송국리 토기와 토종 쌀 체험, 선사 유물 만들기 등 선사시대를 시간 여행하는 이색적인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축제 방문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순환버스도 별도 운행된다.

이창노 위원장은 "부여 송국리 청동기 축제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명품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유익한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동정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



최원철 공주시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

간부회의



이완섭 서산시장은 17일 오전 8시 40분 시청 시장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 참석, 오전 10시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임시회 폐회식 참석,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 참석.

행복문화센터 준공식



박범인 금산군수는 17일 오전 9시 30분 복수면 행복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기초생활지원 조성사업 행복문화센터 준공식에 참석.



공주시 2024 민방위 교육 실시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2024년도 민방위 본 교육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공주시 농업협동조합에서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민방위 집합교육은 민방위대상, 1~2년 차 통리 민방위대원, 민방위기술지원대 전 대원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된다.

집합교육은 입장 시 정보부(QR코드), 퇴장 시 퇴장코드 입력으로 이수 처리되며 전자출결 사이트를 통해 바로 이수증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지정일 참석이 어려운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전국 집합교육 일정을 확인해 별도 신청 없이 교육 가능일에 참석할 수 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스마트민방위교육 누리집(www.adeckn)에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3~4년 차 민방위대원은 2시간,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1시간을 개인용 컴퓨터(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이수하면 된다.

정연광 시민안전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1년에 한 번만 이수하면 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내 수강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공주=정성범기자

금산군 농업인상담소, 3월 한 달 총 669건 상담 진행

영농 애로사항 해소 일조



금산군은 농업인상담소가 호응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을 얻으며 올해 3월 한 달만 총 669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인의 영농에

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산군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보조하면서 지역과 밀접한 농업인 지도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도는 풍부한 현장경험으로 식량, 원예, 축산 등 분야에 잔뼈가 굵은 퇴직 농업지도사 6명이 각자 소장으로서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소해 주고 있다.

각자 담당하는 읍·면 지역이 있으며 경험으로만 알 수 없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요구에 맞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농가를 위해서라면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현장 방문 상담을 하고 있어 농가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고 있다.

또, 나이 및 영농 규모, 지역과 관계없이 농업인과 어울리며 농사에 부족한 부분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식을 알려주고 있다.

금산군 농업인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인상담소(☎041-750-3961~3966)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 농업인상담소가 관내 농업인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서산버드랜드 생태탐방로 걷기 이벤트 추진

A·B코스 지정 장소에서 인증 사진 촬영

충남 서산시가 서산버드랜드 생태탐방로 걷기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천수만의 생태와 환경을 조망하기 위해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철새를 테마로 한 생태공원인 서산버드랜드에서 추진된다.

서산버드랜드 방문객이라면 기간 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A·

B 코스로 나뉜 생태탐방로의 지정 장소에서 인증 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A코스는 3km로 한 시간이 소요되며 재활교육센터, 습지원, 생태교육장, 덩굴원 등을 접하며 걸을 수 있다.

B코스는 1.5km로 30분이 소요되며 미로정원, 물레방아, 약초원,

숲속 놀이터를 들르게 된다.

생태탐방로를 완주한 방문객은 인증사진을 철새사진관 안내 직원에게 보여주면 서산버드랜드 방문 기념 배지를 받을 수 있다.

인증 사진은 방문객 본인 얼굴이 포함되어야 하며 방문한 당일 촬영된 것이어야 한다.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서산버드랜드 탐방로를

걸으며 생태체험도 하고 건강도 챙기기 바란다"며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버드랜드는 24.4ha의 부지에 철새전시관, 4D영상관, 높이 30m의 동지전망대,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등을 갖추고 천수만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공주시, 과수화상병 예찰·사전방제로 개화기 감염 차단

올해 과수화상병 약제 3종 공급 완료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사과, 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 제거를 위한 정밀 예찰을 추진하고 개화기 감염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전 차단에 힘쓰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장미과 기주식물에서 발생하는 국가관리 급성병해충으로 발생 시 과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는데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현재로서는 예방이 최선이다.

이에 따라 공주시농업기술센터는 병균 월동처인 가지 껍질을 제거하고 파쇄하도록 지도했으며, 방제약제 3종을 농가에 지원하고 3월 하순부터 1차 방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개화기에 감염 위험도가 높고 확산 가능성이 높아 개화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시는 지난해 과수화상병 예찰정

보시스템(K-메리블라이트)을 관내 10개소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위험정보(감염위험도 위험~매우 위험)에 따라 24시간 이내 지원된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만약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중심화 기준 50%개화 시점에 2차 방제(옥사이클린)를 하고 3차(아그렙토) 약제는 2차 약제 살포 5일 후 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희영 기술보급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적기 방제를 통해 병균의 밀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개화기에 방제할 경우는 저온 또는 고온인 날씨를 피해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840-8923)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보령시,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만들기(MCR2030) 설명회 참석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과 유대관계 기반 재난복원력 증진 기대

보령시는 김호 안전총괄과장을 필두로 지난 15일 서울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UNDRR 동북아시아사무소 및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MCR2030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샌다이강령 및 MCR2030 핵심내용 소개, MCR2030 도구(스코어카드 및 대

시보드) 활용법 안내, 활용 사례 소개 등 지자체의 통합적인 재난관리 역량 제고와 도시 복원력 네트워크 구축 방법을 교류하는 설명회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보령시는 복원력 허브도시로서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자 UNDRR 동북아시아사무소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9월에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했던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에도 참석해 보령시를 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복원력 허브 인증도시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인천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유엔재난위험경감

사무국(UNDRR)의 동북아시아사무소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실시해 재난 위험경감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김호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재난복원력을 증대시켜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보령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 예비군 육성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지역군부대 및 유관기관 협력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 최선"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의장 김동일)는 예비군 육성 지원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평소 철저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지원 등 지역안보 발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는 김동일 시장을 의장으로 지역 군부대장을

비롯해 보령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소방서장 등 12명의 당연직과 11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총 23명으로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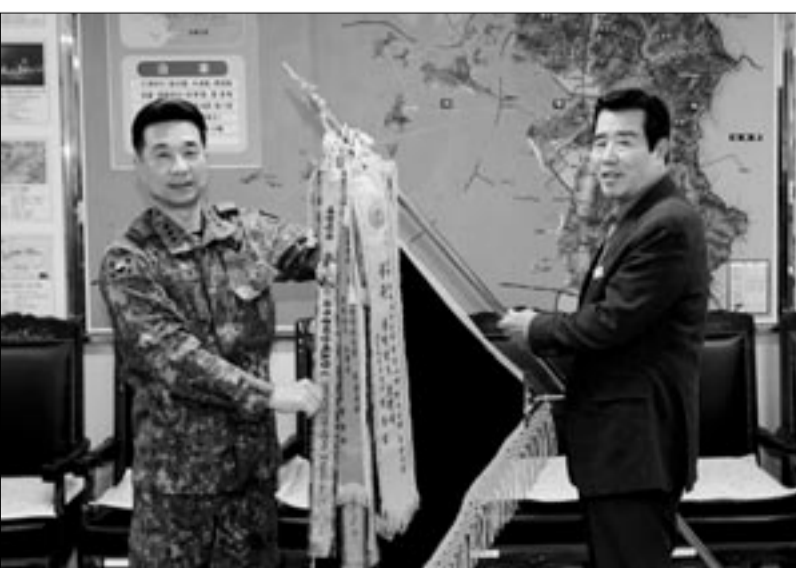
또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조기대응을 위하여 평소부터 민관군경과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유지 및 훈련 등을 통해 지역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여러분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모두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다"라며 "앞으로 지역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시는 지역 안보를 위해 힘쓴 결과 지난해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기관 수상 및 예비군 육성 지원 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바 있다.

김태성기자



우리/동네

서산시 직무성과계약 체결

"가시적 성과·역동적 행정 펼쳐나갈 것"



충남 서산시가 '2024년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시민 중심의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완섭 시장과 홍순광 부시장을 비롯한 6명의 국장(직속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직무성과계약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각 국장(직속기관장)으로부터 올해 추진할 핵심 성과를 보고받고, 직무성과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직무성과계약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성과는 ▲서산공항 건설 추진 ▲기포림단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서산 시청사 건립 추진 ▲지자체 드론배출 상용화 서비스 추진 ▲서산시 전환형 지원회수시설 설치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시설 조성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건립 기반 마련 ▲대산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임대아파트 건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등이다.

시는 핵심 성과를 중심으로 397개의 도전적인 과제를 발굴해 성과평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올해를 성과 창출의 원년으로 삼은바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역동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극세척도(克世拓道)라는 시정 방향에 맞게 1300여 명의 서산시 공직자가 서산만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길 것을 18만 시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계약이 체결된 핵심 성과 과제와 개인 성과목표는 중간 점검과 상담자 면담을 통해 연중 관리되며, 평가를 거쳐 성과연봉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서산=김정환기자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공주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대상 교육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과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4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민자치 이해, 회의기법, 주민참여예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특히,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마을활동과 자치 조직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역 주민자치 리더를 강사로 채용한다.

시는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의제 선정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만호 지역협력과장은 "자치위원은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역 리더이다"며 "변화하는 지역사회에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지방세 체납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금산군, 체납 알림톡 도입

금산군은 납세자 편의 증진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4월부터 모바일 전자문서로 병행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 알림톡은 체납안내문을 종이 대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로 수신한 납세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지방세 체납내역과 금액을 열람할 수 있다.

또, 해당 화면에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제를 통해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 변환 작업을 거치고 정보 열람 시 추가로 본인인증 단계를 진행하므로 기존 우편 발송 방식보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우편물 분실 등 우편 송달과 관련된 납세 불편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에 따라 체납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지방세 징수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건양대·순천향대 글로벌대 '1차 관문' 통과

충남 도내 예비지정 대학 2곳으로 늘어... 최종 지정 위해 총력 대응

충남도는 교육부 주관 '글로벌대학 30' 사업에 건양대·순천향대가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예비지정에는 도내 16개 대학(12건)을 비롯, 전국 109개 대학(65건)에서 혁신기획서를 제출해 20곳이 예비지정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같이 한국연구재단에 맡겨 혁신성, 성과 관리, 지역적 특성 등 3개 영역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 건양대는 지역 특성에 맞춘 국방산업을 특화하여 K-국방 전력지원산업 인력양성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

았으며, 순천향대는 작년 예비지정 지위를 인정받았다. 도는 글로벌대학 사업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예비지정 신청 전부터 도내 대학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해왔다. 지난해 도내 대학의 혁신기획이 충남의 산업 방향과 맞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 단계부터 내부 컨설팅 위원회를 구성, 자체 컨설팅을 통해 도정 연계성 및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또 예비지정 평가 대면 심사에서는 도의 관련 실국장이 참석토록 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특히 김태홍 지사는 지난 1월 이후호 사

회부총리를 도청에서 만나 글로벌대학 사업 대상에 도내 3건 이상 선정돼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예비지정 대학은 오는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혁신기획서에 담은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7월 중 글로벌대학을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김태홍 지사는 "지휘부와 실국장 등도의 행정력을 집중해 이번 예비지정 결실을 맺었다"라며 "최종 지정까지 예비지정 대학과 함께 분기별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대학은 지역 및 지역대의 위기가

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대학을 집중 지원·육성해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추진되는 사업이다. 본지정 대상은 비수도권 일반재정 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으로, 지난해 10개 대학에 이어 올해 10개 대학을 지정하고, 2026년까지 30개 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글로벌대학에 지정되면 1곳 당 5년 간 1000억 원을 지원받고,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KT&G복지재단, 북한산국립공원에 12년째 나무심기 활동 진행
KT&G복지재단이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KT&G 임직원 봉사단 등 총 200여 명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지난 13일 나무심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무심기 활동은 생활폐기물과 불법사설물로 인해 산림이 훼손된 북한산국립공원 도봉문소에서 진행됐다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박중독예방 프로그램 진행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4월에서 5월 중심으로 학부모, 유구초, 태봉초, 교동초, 신월초 전교생 대상으로 '도박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산시,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캠페인 전개
아산시는 지난 13일, '2024년 제7회건강한마당 및 건강걷기대회'와 연계하여 어린이·사회복지시설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기봉, 이하 '센터')와 함께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아산고, 2024 전국춘계남녀하키대회 남고부 우승
아산고등학교(교장 김병진) 하키부가 지난 9일,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섀리드 국제하키경기장에서 열린 2024 전국춘계남녀하키대회에서 남고부 우승을 차지했다.

공주시, 5월 10일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함께할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모집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5월 10일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함께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 관내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30명 이내이다. 참가 신청은 공주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여성가족과(여성다문화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전자우편(sgc81108@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뒤 시정 전반에 걸쳐 여성친화적 관점에서의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 2019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지정받았다. 올해 재지정 신청을 앞두고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정대로 20-20 대동빌딩 7층

대전시, 도서관 정책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23년 도서관정책 평가결과 "국제교류 강화부문" 최고 등급



대전시가 국가도서관위원회 주관 2023년 도서관정책 추진실적 점검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

체, 국회, 법원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대전시를 포함해 제3차 도서관발전계획 2023년 과제 추진 실적을 인정받은 총 11개 기관중앙 5, 시도 6이 선정됐다.

대전시는 특히 '도서관 국제교류 강화' 부문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이는 대전시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남경시의 남경도서관과 한밭도서관이 2005년 9월 '국제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도서관의 우호적 협력과 상호보완을 위한 도서관교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이다. 그동안 한밭도서관은 중국 남경도서관에 국내도서 7,546권을, 중국 남경도서관은 중국도서 6,213권을 한밭도서관에 기증하는 등 활발한 도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남경도서관으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는 현재 한밭도서관 '다문화자료실'에 비치, 시민에게 열람 제공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의 독서 문화증진과 글로벌 서비스의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서관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대전도시공사 '진취적 창의적 인재' 모집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가 상반기 공개채용으로 30명(일반직 16명, 공무직 14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일반직 행정 6명, 기술 8명, 전문 2명, 공무직 14명이다.

신입사원 선발은 대전시의 주요 핵심 사업을 추진 중인 공사는 평년보다 큰 규모의 신규채용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담당자는 "중요사업 추진을 위해 채용 인력이 확대된 만큼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진취적창의적 인재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채용일정은 '대전시 상반기 통합채용' 일정에 따라 4월 29일부터 5월 3일 18시까지 대전시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필기시험은 5월 25일에 치러진다. 직렬별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가산점 등 세부 사항은 대전시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daejeon.saramin.co.kr)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참여단' 발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지난 15일 각계각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온라인 양방향 소통 채널인 '국민소통참여단'을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출범하는 국민소통참여단은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자 심평원 누리집 등을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모집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 구성을 넓혀 직업 및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20명을 선발했다.

국민소통참여단은 올해 12월까지 국민의 관점에서 심사평가원의 대국민 서비스, 의료데이터 관련 정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소통참여단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대국민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이경수 홍보실장은 "국민소통참여단 여러분의 참여와 제안으로 더욱 친밀하게 국민들께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심사평가원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심사평가원 간의 가교 역할을 위해 국민소통참여단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국민분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을 적극 검토,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한남대 '글로벌대학30' 예비지정 선정

대전지역 사립대 '유일'

한남대학교가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한남대는 우수한 창업 인프라와 특화된 창업 교육 역량을 토대로 지역발전전략(스타트업 타운 조성)과 연계한 'K-스타트업 밸리' 대학 모델을 단독으로 제출했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의 근본 의미에 부합한 한남대의 계획은 대전지역 사립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한남대는 대학과 중앙정부, 지자체, 공

기업이 공동 투자해 투자협약법인(한남홀딩스)을 설립·운영하고, 투자이익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 전액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남대는 2023년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24년 12월, 대학 캠퍼스 내에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캠퍼스혁신파크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도시공사와 청년창업 주거단지 건설과, 수자원공사와 함께 물산업 산학협력창업센터 건설을 통한 스타트업 집약지를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는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연구단지와의 활발한 연구



교류는 물론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보육센터 운영, 국내 최초 다국적 기업 바이오교육원 설립 등 스타트업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대덕밸리캠퍼스를 활용해 대전시 전략산업인 바이오메디컬 중심의 캠퍼스로 전환하고 바이오 창업원, 바이오메디컬대학 등 국제 창업 벨트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환기자

호서대학교 직원장학회, 2024학년도 1학기 장학금 전달식 가져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2024학년도 1학기 직원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15일 아

산캠퍼스 본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호서대 직원장학회는 인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을 직원들이 추천하고, 위원회에서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5명을 선발하여 전달했고, 현재까지 146명 학생에게 1억 2,0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양진욱 사무처장은 "대학 환경이 어려워지고 변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발전 가능한 대학을 이루기 위한 교직원들의 작은 노력이 직원장학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서대 직원장학회는 1998년 IMF 시기에 학생들이 학업을 멈추지 않도록 직원들이 모은 기금을 장학금으로 사용하자는 당시 강석규 명예총장의 제안으로 발족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산림복지진흥원,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2023 공공기관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

기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91개 공공기관자회사 90개를 대상으로 자회사의 안정성·지속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총 4개 영역에 대해 종합평가가 진행됐다.

한국의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2019년부터 산림복지시설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포이파트너스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경영진단을 통한 4대 분야 경영개선 ▲이익잉여금 활용자분급 증액을 통한 자본 건전성 개선 ▲직원 복리후생 증진 및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4개 성과지표 중 3개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남태현 원장은 "자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한국의산림복지진흥원의 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자회사 포이파트너스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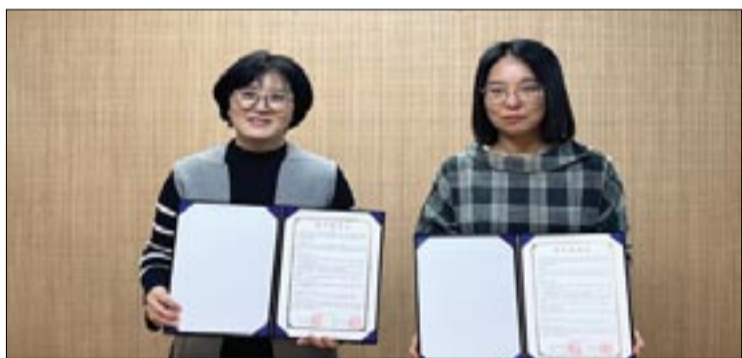
충남교육청,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및 안전의식 고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으며,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오는 26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추모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당일인 16일에는 희생된 학생과 교원을 추모하기 위해 교육청전 직원 이 노란리본 배지를 달고 ▲추모 묵념 ▲지역 영상 시청 ▲종이꽃 만들기 행사 ▲세월호 참사와 재난안전 사진 전시회 관람 등을 진행하였다.



한국폴리텍IV대학-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업무협약 한국폴리텍IV대학(학장직무대리 공병재)은 16일 가림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본부장 김준오)와 현장교육 활성화 등을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구, 마약류 중독 회복의 이해 공개강좌 개최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학교 보건교사, 정신건강 업무 종사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공개강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예산기정상담소-예산지역자활센터 업무협약 체결 예산기정상담소(소장 김미경)는 지난 15일 예산기정상담소에서 예산지역자활센터와 '상호협력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예산지역자활센터 이용자들의 정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 배꽃 인공수정 일손돕기 동참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 황규일)은 직선읍 소재 배재배 농장에서 배꽃 인공수정을 위한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아산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아산시는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15일, 아산시민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매년 4월 20일로 지정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충남시제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회장 이창호) 주최, 아산시 후원으로 열렸다.

한국수자원공사, 미래 물관리 기술 역량 확보방안 토론회 개최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 방안 논의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지난 15일 대전 K-water 연구원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미래 물관리 기술 역량 확보방안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물 분야 전문 학회인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조수수학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이차전지산업 활성화 시대를 대비한 물관리 방안'을 주제로 산업계 및 학회 등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뤄졌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보급이 늘고 있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량을 구동하는데 필수적인 배터리로 사용되는 이차전지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물이



사용된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물의 확보방안과 더불어, 사용된 물의 효율적인 재이용 방안 역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물 재이용 방안은 논의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지원하고 건강한 물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이번 행사의 취지다. 토론회에 앞서 전문가 그룹은 이차전지 산업의 특성, 산업 특성에 맞는 물 처리 동향 및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이어 한국조수수학회 남궁은 회장을 좌장으로 대한상하수도학회 권지향 회장, 대

한환경공학회 김석태 회장,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배진욱 사무관, K-water 연구원 채선하 상하수도 연구소장의 종합 토론에서는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날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장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차전지 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방류수 재이용과 경제적인 처리 방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문가 그룹, 관계기관과 교류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기술개발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아산콜, 투자사기예방

은행원 감사장 수여

아산경찰서(서장 김경열)는 아산북부신협 밀주지점에서 발생한 투자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은행원 A씨는 지난 3월 15일, 위 지점에 방문한 피해자가 고액의 현금(5천만원)을 투자 리당방에 이체하려고 하자, 사기가 의심되어 신속하게 핸드폰을 확인하고 계좌를 정지시킨 후 경찰관서(112)에 신고해 사기피해 예방에 기여했다.

김경열 서장은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은행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상호 협조해 신종 사기범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www.daejeontoday.com

동구, 원동 철공소길 '철부지마켓' 20일 개최

지역 문화예술 창작자를 위한 베품시장 열린다



서대전청년마을 '철부지들' 주관

원동 철부지마켓을 개최한다. 철부지마켓은 원동 철공소길을 살리고, 지역 문화예술 창작자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 대전청년마을에 입주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열리는 베품시장(플리마켓)이다. 철(鐵)부지인 원동 철공소길에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청년들이 만들어 가는 철부지마켓은 4월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달마다 새로

운 주제를 선정해 월 1회씩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달 철부지마켓은 '청년이 비상하는 원동의 스프링'을 주제로 청년이 만든 상품과 수공예품 베품시장을 비롯해 대장장이 체험, 친환경가방(에코백)·열쇠고리 만들기, 로봇·가상현실(VR) 등 37개 체험 공간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만들기, 찰다트 등 철부지 5종 경기도 열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주시 신관동, 다문화가족 20명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폭력예방교육 및 행복모임

공주시 신관동(동장 박원규)은 최근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문화가족 20명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과 화과화자 만들기 체험을 했다.

이번 교육은 공주시 가족상담센터 소속 한희선 교수를 초빙해 다양한 사례를 통한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점검하고 예방법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폭력 문제에 대한 민감성

을 키워 실제 자신의 가정과 자녀의 학교생활에 있어 예방 교육의 효과를 높여 가족과 자녀들이 폭력 없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천연재료의 강낭콩 앙금, 풍가루 등으로 화과자를 꾸미고 다양한 먹거리 체험을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주=정성범기자



건보공단 대전서부지사, 사회적 취약계층 대한 마음치유 사회공헌

'마음 담은 배려, FOOD THERAPY'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지사장 최준영)는 16일 안경원자·발달장애인·아동 등을 지원하는 '공감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발달장애인) 대상 마음치유 및 건강회복 프로그램 「마음 담은 배려, FOOD THERAPY」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서부지사 건이강이 봉사단과 공감 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 등 총 20여 명이 2인 1조로 참여해 기분 좋은 향기가 있는 아모라 푸드테라피를 진행했다.

푸드테라피 행사는 참여한 발달장애인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다. 또 하고 싶다"며 만족감과 아쉬움을 함께 표현했고, 행사가 끝

난 후 발달장애 가족들은 가족의 소중함과 힐링의 시간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최준영 지사장은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음치유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을뿐 아니라 직원들 에게도 매우 소중한 뜻깊은 시간이 됐고, 시작은 미미하지만 사업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에 충실하고, 공단의 비전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사회공헌 활동을 선도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저소득층 안 환우 가족과 함께 하는 봄기운이 느껴지는 제철음식 만들기 & 건강 지식나누기 푸드테라피를 2일 진행할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남서울대-아산시 '키즈앤맘센터' 1호점 개관



남서울대학교(총장 윤승용)는 아산시 키즈앤맘센터 배방점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남서울대 조원길 산학협력담당장과 도미향 대학원장, 박경리 아산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와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이 진행됐다.

남서울대는 지난해 11월 '꿈꾸는 장남감도서관'과 '꿈꾸는 놀이터' 리모델링을 거쳐 교육실, 상담실을 추가 설치하여 3월부터 키즈

앤맘센터 배방점을 수탁 운영 중이다.

키즈앤맘센터는 영유아들의 다양한 놀이 체험과 부모의 육아 상담, 교육 등 종합적인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센터이다. 아산에 거주하거나 아산 소재 기업에 다니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아산시는 2026년까지 권역별(배방, 모창, 신창, 둔포) 키즈앤맘센터 4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남서울대가 수탁 운영하는 배방점은 첫 번째 키즈앤맘센터다.

이정복기자

국가철도공단, 교통수단 혁신시대 발맞춘 조직 전면개편

현장중심 프로젝트 사업관리형 조직으로의 개편 및 인사발령 단행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이 16일 국민과 약속한 철도사업 개동공기 준수와 예산집행력 강화를 위해 현장중심의 PM(Project Management) 체계로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발주기관으로서 대규모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단은 그동안 사업의 다양한 단계와 공사 종류에 따라 주관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각 부서 간 유기적인 연결이 부족해 업무가 지연되는 등 적기 공정 준수를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공단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현장중심 사업관리(PM) 체계를 도입했다. 사업단장이 각 분야(토목·레도·건축·전

철전력·신호통신·토지보상 등)의 업무를 총괄해 공정진행과 예산집행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정 중요 과제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사업과 철도지하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지속 확대에 대비하고 공단의 설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간 분리됐던 건설과 시스템 설계를 하나의 분부로 통합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본부에 '공시중지권'을 부여하는 한편 기존 연구조직을 철도혁신연구원으로 탈바꿈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실용화연구기

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새로운 시도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신설된 사업관리 조직은 사업의 규모 및 단계에 따라 사업단장을 처장·부장·차장급으로 분류하고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들로 채워졌다. 특히, 차장급 사업단장은 직무공모를 통해 지원 받은 후 이사장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돼 능력 있는 직원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한편, 조직개편에 앞서 공단 최장로 인재개발처장과 기획예산처장 직위에 업무능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 간부를 배치해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고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송병배기자

기고

안전한 봄을 위한 다짐



오경진 천안동남소방서장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계절이기도 하다. 조그마한 불씨가 바람에 날려 쉽게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1만4백여건 중 3천여건이 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화재는 계절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천(백여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맑고 화사한 봄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회색빛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

고사성어에 '곡돌사신(曲突徙薪) 무은택(無恩澤) 조두난액(焦頭爛額) 위상객(爲上客)'이란 말이 있다. 아궁이 옆에 있는 뿔감을 옮기고 굴뚝을 수리하며 화재를 대비하

게 한 사람(곡돌사신)에게는 감사할 줄 모르고 화재가 발생한 후 머리를 태우고 이마를 그슬려가며 불을 꺼준 사람(조두난액)에게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다. 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단속하는 일을 중요치 않게 여기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다.

천안동남소방서는 겨울철에 이어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봄철에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며 '곡돌사신'하고 있다. 건설현장, 캠핑장, 축제 행사장 등 봄철에 더욱 취약한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지도 방문은 물론 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시설에 대한 소방 훈련, 주거시설 안전을 위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및 경로당 화재안전서비스와 다방면으로

의 화재예방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봄철 화재는 대부분 담배꽂조와 쓰레기소각, 불씨 등 화원방치, 논두렁과 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미리 조심하지 않고 화재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소한 불씨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불을 사용해야만 할 상황에서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고 난 후에 수습하는 '조두난액' 보다 미리 예방하고 단속하는 '곡돌사신'이 중요한 때다.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화재 예방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화재로부터 안전한 따뜻한 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국정기조 전면 전환 계기돼야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 또다시 펼쳐진 '여소야대' 정국은 3년의 임기가 남은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이자 심판 양상으로 전개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매섭고도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 2년 국정 운영에 거의 낙제점 수준의 점수를 매겼다. 집권여당이 이처럼 참패를 한 것은 역대 총선 사상 처음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만 하는 조유의 상황과 마주하게 됐다. 그동안 공 들인 각종 국정과제·개혁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정과제를 상당수는 입법이나 수반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나 규칙 제정으로만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정부가 내건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을 비롯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같은 의료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여성가족부 폐지와 연계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는 독선과 불통 이미지로 각인된 그간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비롯해 국정 기조 전반에 대해 전환을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선적 리더십, 독단적 국정 운영, 불통 정치는 민심을 떠나게 한 가장 큰 요인이다. 국정기조 전환과 쇄신이 요구되는 주된 대목들이다. 국민을 실망케 했던 그간의 실정은 차치하고서라도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대화 단절로 인한 정치 실종은 대표적 패착이었다. 거대 야당과 협치 없이 국정 운영을 도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와 대통령의 대화는 필수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거부했지만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조연을 구하고 국가적 불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아울러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경계히 만들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극한 진영 대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만이라도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데이터 기반 창업 이끌 아이디어·제품 찾는다

세종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오는 6월 14일까지 예선 접수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와 제품,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4 세종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과 신규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다.

참가 자격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 아이디어를 기획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 개인이나 4인 이내의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6월 14일까지이며,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등 전문 심사위원 평

가를 거쳐 오는 7월 우수작 6팀을 선정해 세종특별자치시시장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분야별 최우수작은 오는 8-9월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에 참여할 수 있는 진출권이 부여된다.

본선 대회 입상 시에는 대통령상 및 상금,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은 "이번 창업경진대회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 학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이나 정보통계담당관실 창업경진대회 담당자(☎ 044-300-2415)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예산군 삼교공공도서관, '충남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선정

군민 문화욕구 충족·독서문화 진흥 '총력'

예산군은 삼교 공공 도서관이 충남 도서관의 날 행사에서 '충남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충남 공공 도서관 운영 평가는 우수 도서관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충남도 대표 도서관인 충남 도서관이 충남 지역 4개 공공 도서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한 것.

이번 평가에서는 도서관 규모 별로 삼교 공공 도서관을 비롯한 4개 도서관이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됐다.

삼교 공공 도서관은 지난해 '도서관 밖 도서관 운영'을 주제로 이용 대상별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작은 도서관 및 문화 시설과 협력 사업 추진,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디지털 정보 서비스 확대 등 사업을 추진해 도서관 서비스 혁신 사례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고동주 공공 시설 사업 소장은 "앞으로도 군민 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유익한 독서 문화 시책 추진과 함께 미래 지향적 도서관 정보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군민 문화 욕구 충족과 지역사회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비즈니스

Table with 3 columns: 발행/편집인, 전화안내, 구독대금안내 and 3 columns: 회장, 기사제보, 광고신청안내. Includes contact info for subscription and advertising.

등록번호 : 대전가 00017 인쇄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시의 향기



고안나 작 시낭송가·한국문화해피교류협회 부산지회장

고안나 시인의 '시냇물'

시월, 어느 날

늪은 목련나무 밑에 앉아
겉껍이 포개 입은 꽃속으로 들어간다

아는 지 모르는지
세상을 들어 울리는 목련꽃
힘에 부친 탓일까
손에 들었던 치맛자락 휘청
달갑지 않은 황사 탓에 얼룩진 꽃잎들

너털너털 찢어진 차마처럼 벗고 있다
차마, 어찌할 수 없는 일
거부축축한 살갓들, 땅바닥 뒹굴다
여기 저기 버려진 몸들

오! 눈부신 때도 잠깐
봄날도 순간
병상에 누워 땀이 흘러다보시던
팔순 얼마도 그랬다
서둘러 버릴 줄 아는 걸목
애 터지게 봄비가 울어 쌓는다

▶ 시작 노트
목련은 나무에 피는 연꽃이라 했다. 고귀함이라는 꽃말에 어울리게 어떤 꽃 보다 격조 높은 자태를 뽐내고 있다. 고결하고 순결한 여인상을 나타낼 때 비유되기도 한다. 유난히 목련꽃을 좋아하셨던 엄마 생각이 난다. 눈부신 때도, 봄날도, 우리의 인생도 한순간에 스쳐갔던 무너져만 갔을 때, 애 터지게 봄비가 울어 쌓던 목련나무 밑에서 괜히 서성거린 적이 있었다.

시의 향기



백성일 작 '푸른하늘 아래서' 문학비·한국문화해피교류협회 경북지회장

백성일 시인의 '바람이었다'

봄비

기척도 없이
여인의 버선발 걸음으로
늦잠에 취한
들판의 새싹들

파릇파릇한 얼굴로
봄노래 하고
뒤편 매화도
넉넉하게
마음 조금하여
꽃망울 터뜨리고
내 마음의
봄비는 언제 오려나.

▶ 시작 노트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오는 것이 봄비다. 때론 겉손하게 보일 때도 있다. 시절은 또 한 해가 시작되고 봄비가 지나가고 나면, 움츠린 몸과 마음이 생기가 들고 봄 속으로 들어간다. 화사한 매화 향기에 화자도 설렘이 가득하다.

시의 향기



송기준 작

송기준 수필가의 '삶의 생각 뒤안길'

금서면 민원실

농지원부 발급 받으려고요.
주민등록증 주셔야
집전화기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다
얼굴엔 표정이 없다

저 여직원
거울 볼 때도 안웃으려나. 아님
웃으면 돈이라도 드나

아냐. 이곳은
이승원이 기한 넘긴 고지서 가지고 간
사강우체국이 아닐러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 지원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난연·불연·준불연 자재 사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중 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배창우)은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적으로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배창우 청장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간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 기자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DT 대전투데이 연중 환경 캠페인

지구를 살립시다!



‘지구 온난화’ 지금 멈추지 못하면, 우리들의 **내일**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주 관	대전투데이	DTN				
후 원	한국강력엔지니어링진흥재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대성리글린 대표이사 김정태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브이케이테크주식회사 www.vktech.co.kr	(주) 제이콘	충청환경에너지(주)	주식회사 레일웍스 CONSTRUCTION & MAINTENANCE	INSGREEN 주식회사 인스그린	More than Chemistry 롯데케미칼
	Hanwha TotalEnergies	대성리글린 주식회사	제이엔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성개발산업	에이지디포장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해토
	MeG(주)엠이지발효연구원					